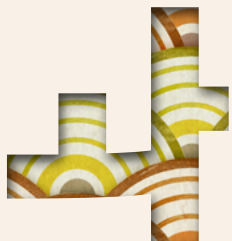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



2017
충남문화
Vol. 21



충남문화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

충남 문화

Chungnam Cultural Magazine No.21

문화비전 선언문

문화는 삶을 담는 그릇이다. 우리는 문화시대에 살면서 세계인과 한가족으로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할 책무를 지닌다.

지방문화원은 전통문화예술의 발굴과 육성, 문화예술교육 기회의 제공, 문화자원의 확보와 활용에 앞장서 온 지역문화발전의 주역임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제 인간의 창의성 계발, 우리 문화의 세계화,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화적 책임 등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 새로운 문화환경을 선도하는 문화원이 되기 위해 역할의 재정립을 가다듬어야 한다.

지방문화원은 도약을 다짐하는 뜻에서 ‘문화원의 날’을 제정하고 우리의 공고한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선언한다.

지방문화원은 지역의 여러 문화 주체들의 힘을 모으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지방문화원은 이 시대 주민들에게 필요한 지식정보와 다문화 시대의 매개자가 된다.

지방문화원은 문화 소외층이 없도록 함께 나누며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펼친다.

지방문화원은 일회적·단기적인 사업을 지양하고 지속적·장기적인 활동을 추진한다.

지방문화원을 문화경영의 전문조직으로 적극 육성한다.

대한민국 231개 지방문화원 임직원 일동

‘근자열 원자래’ 近者說 遠者來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 회장

김 한국



21세기는 ‘문화의 시대’입니다.

첨단과학의 기술혁명시대와 세계화를 부르짖던 글로벌 시대를 넘어 바야흐로 문화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언론에서는 국내영화가 천만관객을 돌파했다는 것과 해외에서도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는 기사가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보이그룹 가수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열광적인 인기를 얻는 모습도 이제 익숙합니다. 이는 우리가 보고 듣고 입고 즐기는 모든 것들을 세계인이 주목하고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한류문화뿐 아니라 요즘은 ‘문화’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든 문화와 연관시키면 가장 앞선 것으로 평가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 데에는 자신들의 삶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에 사람들이 보다 많은 관심을 갖게 된 것과 특정계층에 국한되었던 문화적인 삶의 대중화에 기인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산업발달에 따른 경제수준의 향상과 함께 사람들의 삶의 질에 대한 기대 수준이 향상되면서, 문화적인 삶의 향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문화적인 삶을 기대하고, 또한 누구에게나 문화적인 삶의 기회가 제공되고 있는 것입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충남의 문화원들에서는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민들의 삶의 가치를 높이고, 인문교양과 지역의 향토문화 발전을 통해 지역의 문화 수준 향상을 위해 애써왔다고 자부합니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충남지역 15개 문화원의 활동 내용을 「충남문화」로 매년 엮어 온 것이 올해로 21회째를 맞았습니다.

공자가 말하길 ‘근자열원자래(近者說遠者來)’라 했습니다. 가까운 사람을 기쁘게 하면 멀리 있는 사람까지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앞으로도 충남의 문화원들은 지역의 오랜 문화 매개자로서, 보다 다양하고 풍부한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힘쓸 것입니다. 또한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에서는 문화원들의 역량을 한데 모으고 충남지역문화의 활발한 교류에 앞장서서, 타 지역에서 닦고 싶은 충청남도 문화예술의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진해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테마기획

충남 여성문인의 발굴과 문화원의 역할	문희순(충남대)	06
2018 문화트렌드 분석 및 지방문화원의 방향 찾기	최영주(경기도문화원연합회 사무처장)	09

풍경에의 유혹

가을이 특히 아름다운 곳, ‘공주 임립미술관’	최창석(공주문화원)	12
금산은 인삼이다. ‘금산인삼관’	전병만(금산문화원)	14
계백장군의 충혼이 담긴 ‘논산 백제군사박물관’	김형태(논산문화원)	16
시간과 공간이 공존하는 자연속 미술관, ‘당진 아미미술관’	강대원(당진문화원)	18
천년의 역사가 고스란히 살아 숨쉬는 ‘보령 박물관’	김진경(보령문화원)	20
검이블루 화이불치의 보고. ‘부여 정림사지박물관’	김인권(부여문화원)	22
우주로 출발! ‘서산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	이경식(서산시 문화시설사업소)	24
한국최초의 성경전래지에 세워진 ‘서천 성경전래지 기념관’	문치운(서천문화원)	26
추사의 발자국을 따라... ‘예산 추사기념관’	이수영(예산문화원)	28
아산정린박물관을 다녀와서	김형기(온양문화원)	30
찰나의 힐링 공간, ‘천안 한 뼨 미술관’	곽승일(천안시동남구문화원)	32
세계적인 미술도시 천안의 품격. ‘천안 아라리오 갤러리’	신광식(천안시서북구문화원)	34
청양 속 백제의 흔적을 찾아 ‘청양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강원구(청양문화원)	36
다시 살아난 바다, ‘태안 유류피해역사 전시관’	안은선(태안문화원)	38
고즈넉한 공간의 멋, ‘홍성 이응노의 집’	조남민(홍성문화원)	40

No.21 충남문화

Chungnam Cultural Magazine No.21

발행일 2017년 12월 발행인 김한국 편집위원 이종석(천안시서북구문화원), 이철주(금산문화원), 이진우(청양문화원) 기획 정지수 편집 김상희 행정 송은지 발행처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21 충청남도청 별관동 101호, TEL 041)635-9102, FAX 041)635-9104

* 이 책은 충남문화재단의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보조받아 발간되었습니다.

우리문화원 짱

제4회 풀꽃문학상 시상식 및 시가 있는 콘서트	정지은(공주문화원)	42
한산모시 규방공예	문치운(서천문화원)	43
대한민국 영상문학 제1호 임희재를 추억하며	손홍영(금산문화원)	44
논산문화원 문화학교, 다시 시작하다.	고승연(논산문화원)	46
협력을 통해 기존 사업의 전환을 모색하다	강대원(당진문화원)	48
블링블링 보령오감(保寧五感)	임명검(보령문화원)	50
음악을 통하여 주민과 소통 ‘부여청소년오케스트라’	이미영(부여문화원)	52
서산 벗가릿대 한마당	최윤경(서산문화원)	54
예산문화원 짱!	이충환(예산문화원)	56
나눔의 따뜻함이 한 코 한 코에!	이명숙(온양문화원)	58
천안지역민의 오감을 자극하는 전국유적답사	곽승일(천안시동남구문화원)	60
칠갈색소폰양상블 동아리	강원구(청양문화원)	62
제13회 태안문화제 개최	김가람(태안문화원)	63
아름다운 동심과 오카리나의 선율에 빠지다~	김숙희(홍성문화원)	64

해외연수 답사기

음악과 함께한 동유럽의 행복한(同行) 연수!	최창석(공주문화원)	66
베트남에서의 여운을 느끼며	손홍영(금산문화원)	74
침략의 역사를 넘어 신성장국으로 도약하는 베트남을 다녀오다	최윤경(서산문화원)	76

문화원 소식

2017' 문화원의 날 기념식	편집부	80
금산문화원 50주년 기념행사	편집부	81
논산문화원 60주년 기념행사	편집부	81

2017 충청남도 지방문화원

2017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 활동상황	82
2017 충남지방문화원 현황	84

충남 여성문인의 발굴과 문화원의 역할

문 희 순 (충남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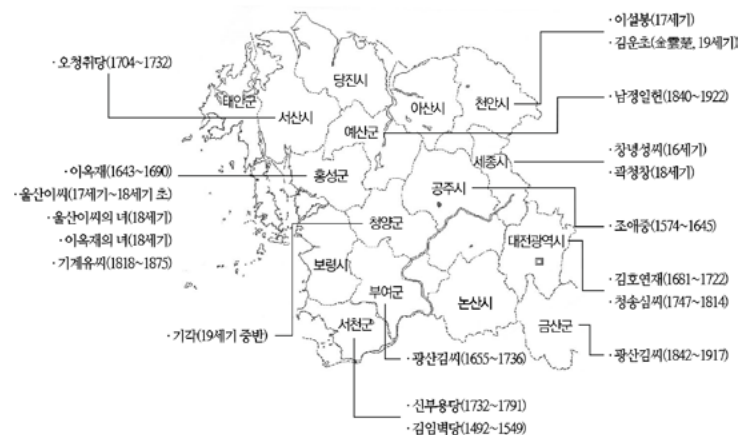
1. 문학 꽃을 피워낸 충남의 여성

조선시대 충남 여성들의 삶은 그녀들이 남긴 문학 작품·일기·한글편지 등으로 유추할 수 있다. 온전한 형태의 문집 발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작품의 편린을 남기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여성들의 문학 활동과 작품의 보존에 취약했던 당대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각종 문학평론서나 시선집, 문헌에 수록된 여성들의 작품은 그 자체가 기적처럼 여겨질 때가 있다. 충남(대전 포함) 여성가운데 문집이나 단독 작품집 형태의 기록물이 전해지는 여성을 오늘날의 행정 구역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대전** 김호연재(金浩然齋, 1681~1722) · 청송심씨(1747~1814, 송계래 처)
- **세종** 창녕성씨(15~16세기, 최당 처) · 괘청창(郭淸窓, 17~18세기)
- **공주** 조애중(曹愛重, 1574~1645) · 광주안씨(18세기, 南泳 처)
- **서천** 김임벽당(金林碧堂, 1492~1549) · 신부용당(申芙蓉堂, 1732~1791)

2. 충남 시·군별 여성문인 분포도

【조선시대 충남에서 문집(일기·번역시집)을 남긴 여성문인】



- **홍성** 이옥재(李玉齋, 1643~1690) · 이운(李燾, 17~18세기)
안동김씨(17~18세기, 李命世 처) · 안동김씨(17~18세기, 李栻 처)
안동김씨(17~18세기, 李恒壽 처) · 안동김씨(18세기, 이옥재의 서녀)
기계유씨(1818~1875, 金好根 처)
- **서산** 오청취당(吳淸翠堂, 1704~1732)
- **예산** 남정일헌(南貞一軒, 1840~1922)
- **논산** 광산김씨(1842~1917, 宋國老 처)
- **청양(논산)** 기각(綺閣, 19세기)
- **천안** 이설봉(李雪峯, 16~17세기) · 김운초(金雲楚, 19세기)
- **부여** 광산김씨(1655~1736, 李頤命 처) 등이다.

이상의 충남 여성 문인의 분포는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발굴된 여성문인의 규모로 볼 때, 타 지역에 비하여 월등히 많은 특징이 있다. 이는 조선시대 충남에 살았던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교육 받았다는 증거이고, 한편으로는 여성문인 발굴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결과이다.



오청취당 시비

3. 충남 각 문화원의 역할과 여성문인의 발굴

충남 여성문인이 발굴되고 번역된 데에는 충남 시군 소재 문화원들의 역할이 컸다. 위 여성문인 가운데 대전의 김호연재(金浩然齋), 서천의 김임벽당(金林碧堂)과 신부용당(申芙蓉堂), 홍성의 이옥재(李玉齋) · 이운(李燾) · 안동김씨(李命世 부인) · 안동김씨(李栻 부인) · 안동김씨(李恒壽 부인) · 안동김씨(이옥재의 서녀), 서산의 오청취당(吳淸翠堂), 예산의 남정일헌(南貞一軒), 천안의 김운초(金雲楚)의 문집은 각각 대전의 대덕문화원, 서천문화원, 서산문화원, 예산문화원, 천안시서북구문화원(구.성환문화원) 등의 예산 지원으로 한글로 번역되어 출간되었다. ①한시집(후손가 소장) → ②한글번역본 출간(문화원) → ③학계의 연구 논문 발표(연구자) → ④콘텐츠화(문화원)의 단계로 확산되며 충남 여성문인의 삶과 문학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아직도 발굴되지 못한 채 후손가나 박물관 고문서실 등에 소장되어 있는 여성문집이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 충남 각 지역의 문화원들에 의해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되어 충남의 여성문인사가 더욱 찬란히 빛나기를 희망해 본다.

4. 여성문인 배출의 의미

조선시대는 성리학적 유교이념의 강화와 함께 여성의 문자 행위는 그만큼 더 위축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있다. 그러나 충남 지역은 이상에서 확인한 것처럼 이 우려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충남 여성 문인의 면면한 문학 활동과 문집 발간의 정신사는 어디에서 근원한 것인가? 그 현상의 기저에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이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오청취당 시비

첫째, 충남 여성들 각자의 삶에 대한 철학적 사유의 결과이다.

충남 여성들은, 조선이라는 시대 속에서 자신들이 일구어 낼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한탄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현실에 좌절하면서도, 자신의 정체성과 인간 존재에 대한 철학적 탐구를 시도하고 모색하였다. 대전의 김호연재(1681~1722)는 <정심장>에서 “음양은 성질이 다르고 남녀가 행실이 다른 것이니, 여자는 감히 망령되어 성현의 유품을 취급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아름다운 말과 착한 행실과 교화의 밝음이 어찌 남녀가 다름을 혐의하여 사모하고 본받지 않겠는가?”라고 말한 바 있다. 비록 여성의 몸이기는 하나 하늘에서 받은 성품은 애당초 남녀의 차이가 없다는 대전제를 천명하였다. ‘여성으로서 성인되기를 기약한’ 여성문인이다. 이렇듯 여성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자신감은 남성들에게 결코 뒤지지 않는 독서량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기호유학의 난숙·전개가 여성들의 학문적 사유에 동기부여 하였다.

위 표에 기록된 여성들은 모두 기호학파(畿湖學派)의 자장 안에 있는 여성들이다. 조선 후기 특히 18세기로 접어들면서 여성 지성인들의 활약상이 두드러지는 특징이 있다. 논산에는 돈암서원이라는 기호학파의 중심 서원이 있다. 서원을 중심으로 완성된 충남 사족의 학문적 발전과 성취는, 여성들의 학문적 사유에도 커다란 동기가 부여되었다. 충남의 선비가들은 아들 딸 차별 없이 교육시킨 사례가 많다. 훌륭하게 교육받은 여성들은 훈인을 통해 가정 속의 교육자가 되어

선비들을 길러 내었다. 남성과 여성, 포용과 상생의 실천이다.

셋째, 고양된 선비문화와 가문별로 여성에 대한 존모의식의 전통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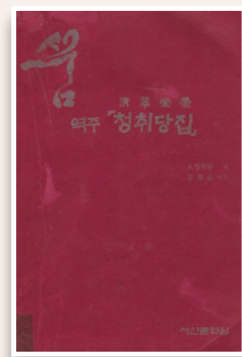
선비의 뒤에는 어머니가 있다. 한 양반을 선비로 길러내는 사람은 바로 어머니이다. 충남지역 선비가 출처진퇴의 경계에 부딪혔을 때, 그를 선비의 길로 이끈 사람은 바로 어머니였다. 참 군자의 도를 추구하도록 가르쳤던 어머니(여성)에 대한 기억과 숭모의식은 여성에 대한 존중으로 확대되었다. 연산의 사계·신독재, 회덕의 우암·동춘 가문에서는 고려 말 양천허씨·고흥류씨 할머니에 대한 숭모의식이 있다. 허조비와 유조비는 광산김씨를 연산김씨로, 은진송씨를 회덕송씨로 존재하게 한 중흥 시조요, 이 두 가문이 충남 지역의 큰 선비가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실마리를 연 여성(할머니)이었기 때문이다.

넷째, 자연·인문지리적 영향이다.

충청남도는 바다와 섬, 산과 들, 내륙을 관통하는 금강을 끼고 있어 물산이 풍부하고 의식주와 교통수단이 용이하다. 높지도 낮지도 않은 비산비야의 넉넉한 들녘. 사람들은 그곳에 깃들어 살면서

온유돈후한 충청남도 사람의 성정과 인심을 만들어 내었다. 충청남도는 중앙정계와 가까운 지정학적 위치로 인하여, 자의든 타의든 관료생활에 일정거리를 유지하고자 한 사람들의 또 다른 거주지로 자리매김 된 곳이다. 한양에서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자연 조건은 은둔과 출사 두 가지 정황을 용이하게 만들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은둔은 학맥과 훈맥으로 이어지며 충남 지역에서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켰다. 이러한 모든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충남 지역 여성문인 배출의 전통이 형성된 것으로 파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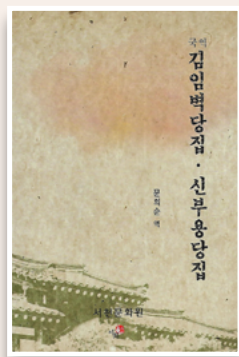
결론적으로, 충남은 절의 있는 여성들의 삶을 존중하고, 문학적 성취가 있는 여성들의 문학행위를 공식·비공식으로 후원하며, 문집 발간과 세대 간 유통·보존시키는데 적극적이었다. 할머니 어머니라는 이름의 여성 문집의 출판도 도모한 후손 남성들은, 문집의 서문이나 발문을 통해 해당 여성에 대한 존모의식을 소상하게 밝혀 놓았다. 이는 가족사 안에서 여성에 대한 존경과 외경심의 발로로 여겨진다. 우리의 상상과 편견을 불식시키고 가족평등과 어울림을 실현한 집안들이 많이 있었다. 양성평등 그 너머에 조선시대 충청남도 가족사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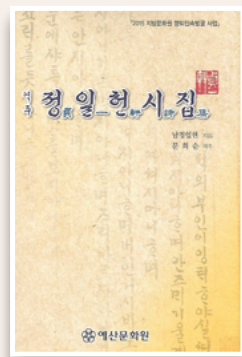
2009년 서산문화원발간
「역주 청취당집」



2010년 성환문화원 발간
「국역 운초기완」



2013년 서천문화원 발간
「국역 김임벽당집 신부용당집」



2015년 예산문화원 발간
「역주 정일헌시집」

2018 문화트렌드 분석 및 지방문화원의 방향 찾기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사무처장 **최영주**

대한민국은 발전해 왔다!

그 ‘발전’이라는 맥락을 나는 아래의 그림처럼 본다. 그동안 대한민국 사회는 ‘발전’이라는 개념을 ‘완성된 어떤 사회’를 상정해 놓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지점에서 기존에 존재해 왔던 지역, 사람의 다양한 성향과 성격을 단일한 사상과 정신, 설정된 하나의 궤도를 향해 매진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했다. 때문에 당시 설정된 궤도는 미국을 중심으로 재편된 세계질서에 편입하는 것이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에 한국의 전통문화, 역사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의식이 전제되어야 했다. 세계 질서에 편입된다는 것은 서구 중심의 가치관으로의 전환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즉 기존에 존재하던 지역적, 전통적, 향토적인 것은 구시대적인 것으로 치부했고, 개선해야 할 어떤 것으로 인식시켜왔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질적인 것, 특이한 것, 다양한 것들은 축소, 왜곡, 제거하는 형식의 매커니즘이 전사회적으로 작동해 왔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발전

이었고, 지금 한국의 현재를 만들어 왔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발전’이라는 개념은 이전보다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완성된 사회를 지향하는 것이라 볼 수 있고, 완성된 사회를 지향한다는 것은 ‘동일성이 확대된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정리해 보자면 ‘발전이란 이질성의 지대가 해체되고 이질성의 폭이 축소되어 가는 과정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사회는 지역에서 중심으로, 시골에서 도시로의 삶의 방식을 추구해 왔다. 이에 따라 한국의 전통적 가치, 예를 들면 증여, 호의, 배려를 기본으로 하는 관계공동체는 해체되고 아파트공화국으로의 길을 걸어왔다. 해방 이후 현재까지는 ‘잘 살아보세’라는 한 가지 목적 아래 모든 것이 흡수되던 ‘산업화’ 시대였다. 그 산업화 시대의 문화적 중심을 이루고 있는 상징적인 것을 ‘문화원’이라고 본다면, 이제 한국사회는 ‘문화원의 시대’가 이미 끝난 것이 아닌가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현대 사회를 살고 있는 시민들은 이미 산업화 시대가 아닌 민주화를 겪고, 민주주의 시대에 살고 있다. 경제적 측면 보다 문화적 측면이 강조되는 시대에 이미 살고 있다.



지금 지방문화원이 사업을 추진하고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 모양은 이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자기 투자를 하고, 보다 민주적인 삶의 가치에 대해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산업화 시대’적 가치를 들고 ‘나를 따르라!’하는 모양새다.

그러니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구태의연한 모양새고, 구식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방문화원은 비합리주의적 아비투스로 구성된 연고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다. 행정과 조직의 강점이 기획으로 연결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시대가 변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발전’이라는 것은 이질적인 것들이 해체되고, 이질성의 폭이 축소되어 가는 과정을 뜻한다. 사회가 발전한다는 것은 특수하고 이질적인 것을 축소시키고 제거하는 방향으로 되어 간다는 것을 뜻한다. 그동안 지방문화원은 지역특성, 지역공동체, 지역정체성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즉 한국적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으로 물신화된 사회에서 하는 이 주장은 발전된 사회, 즉 ‘동질화’하는 과정과의 대결을 뜻하게 되었다. 끊임없이 보편적 가치를 위해 사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권력’과정과의 대결을 해야 하는 입장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모순이 발생한다.

중앙 중심을...

지역 중심으로!

동일한 것들을...

특수한 것으로!

끊어진 관계를...

공동체 회복으로!

공급자 중심을...

수요자 중심으로!

앞으로 지방문화원이 지역문화를 발전시킨다는 것은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특이한 점을 부각시켜 지역민들의 애향심을 고취하고, 다른 지역사람들과 다른 색다른 점들이 ‘내가 이 곳에 살게 하는 이유’를 만들어 내는 것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제 중앙중심이 지역중심으로, 동일한 것들에서 특수한 것으로, 끊어진 관계를 공동체 회복으로, 공급자 중심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지방문화원이 생각보다 지역문화에 대한 고민을 생각보다 체계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고 본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에서는 2018년 이후 문화정책 키워드를 아래 5가지로 정리했다.

- 1 지역특성화
- 2 생활문화
- 3 문화다양성
- 4 문화재생
- 5 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

1. 지역특성화

‘지역특성화’는 중앙집권적 문화 인프라에 종속되는 것이 아닌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된 문화정책이 추진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자의적, 주관적이 아닌 보편적, 객관성을 담보한 기획이 중요해진다는 뜻이다.

2. 생활문화

‘생활문화’의 맥락은 ‘문화생활’지원이나 ‘생활문화’지원인가의 관점에서 봐야하며 이것은 ‘문화의 민주화’와 ‘문화민주주의’의 맥락에서 재해석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지방문화원은 두 가지의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해야 한다.

하나는, 지방문화원은 문화생활지원이 아닌 생활 문화지원구조로의 전환이 가능한가. 또 다른 측면은

지방문화원을 생활문화커뮤니티플랫폼으로의 전환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이 그것이다.

3. 문화다양성

‘문화다양성’의 맥락은 시민문화예술교육의 질적인 전환이라는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제는 지역 정체성이라는 맥락이 아닌 개별성, 특수성의 차원에서 지역을 읽고 해석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4. 문화재생

‘문화재생’의 맥락을 읽기 위해서는 몇 가지 논쟁에 대한 입장정리가 필요한데, 문화를 재생한다는 것에 대한 독해가 필요하다. ‘재생’한다는 것은 ‘다시 살려 낸다’라는 뜻으로 보면 ‘문화를 재생한다’는 것은 기존 문화가 잘못되어 있으므로 다시 살려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것이 아닌 문화재생을 ‘문화로 재생한다’라는 의미로 파악해야 한다. 그렇게 해석할 때 현재 추진되는 일련의 사업들이 읽힌다.

즉 하드웨어 중심이 아닌 유희공간 활용에 포인트를 둘 수 있게 되고, 도시재생과 문화재생이라는 개념 구별이 가능해진다. 또 지방문화원이 그동안 관계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예술인과의 접점구조를 마련하는 ‘레지던시’사업이 지역문화활성화에서 맥락을 갖고 추진할 수 있게 된다.

5. 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

‘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은 지방문화원의 사업추진 구조를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의 변화를 전제로 한다. 즉 지역주민의 자발적, 창의적, 주체적 관계커뮤니티형성에 지역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이제 지방문화원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무엇을 지향하며 사업을 구상하고 추진하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다시 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어떤 것이 옳고 그른가를 논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하나의 길만을 합의하고자 함이 아니다. 문화원 마다 저마다 특색을 가지고 있고, 그 특색들이 모여 다양한 문화의 빛깔을 만들어내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자는 것이다. 문화원이 발전한다는 것은 내 주변에 있는 돌맹이 하나, 내 옆을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역사적 맥락에서 새롭게 의미 지어지고 새로운 가치로 재탄생하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핵심은 지방문화원이다. 그것을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하게 하기 위한 지원이 연합회에서 해야 할 일이다. 중심은 ‘지역’이기 때문이다.

문화원은 이제 달라져야 한다. 연합회도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말의 상찬’이 아니라 구체적인 아젠다(Agenda)가 설정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단기, 중기, 장기적 방향이 합의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명확한 실천이 담보되어야 한다. 사업과 사업의 연계 구조를 찾고 각 단위사업의 맥락을 다시 잡아야 한다. 이제는 ‘예전에 문화원은 이랬는데’하는 말을 되풀이 하지 말자. 아이디어 차원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가 현실적 성과를 내기 위한 근거와 논리를 개발하고, 그 기획이 왜 필요한가, 이 기획을 통해 지역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한 객관적 전망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가을이 특히 아름다운 곳, ‘공주 임립미술관’

공주문화원장
최창석



공주에서 대한민국의 명산이며 한국의 오악 중 하나인 계룡산을 향해 10Km쯤 가다보면 오른쪽 양지바른 마을(계룡면 봉곡길 77-13)에 아기자기한 미술관이 하나 보이는데 이곳이 임립미술관이다. 교육자요 미술가이신 70이 훌쩍 넘긴 노교수가 충남대학교 회화과 교수를 퇴임하시고 사재를 털고 심혈을 기울여 만든 예쁜 사립미술관이다.

임립미술관은 미술인들의 창작과 지원, 전시회를 통한 미술문화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아이들의 미술교육장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2004년부터 매년 가을 국제 미술제를 개최하여 지금은 제13회째 국제미술전이 11월 13일까지 진행 중에 있고 이런 활동들은 임립미술관을 국제적인 미술 교류의 장으로 인정받는 기회가 되고 있다.

나는 가을이 되면 빠짐없이 계룡산 등반 후에나 논산 탐정 저수지 윈드서핑을 마치고 올 때 꼭 임립 미술관을 들린다. 가을의 단풍과 야외조각품들이 잘 어울리어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전시관 위쪽의 저수지와 그 저수지에 비친 파란 하늘들이 너무 아름답다. 산책로 주변에는 감나무 등 각종 열매들이

풍성함을 자랑하고 있어서 더욱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좋은 장소이다.

이 아름다운 가을에 국제미술전도 감상하고 앞에 명산 계룡산이 아름다운 자태를 볼 수 있는 명당, 공주시 계룡면 기산리에 자리 잡은 임립미술관을 관람하실 것을 강력 추천한다.



금산은 인삼이다.
‘금산인삼관’

금산문화원
전 병 만



인삼은 그 이름부터가 사람의 모습을 닮았다. 생김새가 사람같은 인삼은 그래서인지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약재로 인류의 영약이자 수많은 효능을 지닌 ‘신비의 약초’로 한방의 약재 중 으뜸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옛부터 “만약(萬藥)의 왕은 인삼”이라 하지 않았던가. 금산의 인삼은 천오백 년 전 신선이 내려준 신초로써 전해지는 강처사의 풀 한포기가 아니다. 강처사를 통해 전해진 이 신비한 약초는 강처사의 어머니를 살리고 나아가 열매로 재배되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나눔과 사랑의 풀 한포기가 된다. 사랑과 배움의 결실이 금산의 인삼인 것이다.

국가주요농업유산 제5호로 지정된 금산인삼의 가치, 역사, 활용을 위해 금산인삼관은 금산인삼 헬스케어 특구에 1998년 개관하고, 2006년, 2011년, 그리고

올 해 2017년 리모델링을 통해 새로운 모습을 8월 말에 선보였다. 1층에 인삼역사관, 2층에 인삼산업관과 인삼과학관, 3층에 인삼음식관과 인삼약초관, 포토존으로, 인삼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인삼종합 선물세트와 같은 모습으로 구성되어 있다.

금산인삼관에는 천년인삼이 있다. 공식명칭은 평안남도 천성산 관음사 목조 보살좌상 복장 유물인삼인데, 부산 원광사 목조 관음보살상 복장(腹藏: 공양품을 넣는 공간)에서 발견되었다. 천년의 시공을 초월하여 서로 사랑하며 얹혀있는 모습으로 발견된 천년인삼의 놀라움과 함께 사랑과 생명을 나누는 진실한 풀 한포기, 금산인삼의 의미를 금산인삼관을 방문하셔서 찾아보기를 권한다.

금산인삼관

주소: 충남 금산군 금산읍 인삼광장로 30



계백장군의 충혼이 담긴 ‘논산 백제군사박물관’

논산문화원
김 형 태



나당 연합군과 백제의 마지막 전투를 떠올리면 모두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계백장군’. 장군의 묘는 계백장군유적지로서 충청남도지정 기념물 제74호로 지정(1989년)되어 있다. 바로 그 앞으로 백제군사 박물관이 자리 잡고 있다.

백제군사박물관은 지난 2005년에 개관하여 제1·2·3전시실과 야외전시장, 호국관, 이렇게 총 5군데로 나뉘어 전시가 되고 있는데 제일 먼저 제1전시실에 들어가면 풍납토성, 웅진성, 부소산성 등 주요 성의 모형을 통하여 백제시대 토성의 축조과정과 성의 기능, 방어체계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제2전시실 입구에서는 백제군의 긴 행렬모형을,

안쪽에서는 말을 탄 채 싸우고 있는 병사 모형을 볼 수 있는데 이를 통해 그 당시의 의장, 복식 및 무기 등을 알 수 있다.

제3전시실의 바닥에는 넓은 면적의 논산 지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계백장군이 이끈 5천 결사대와 김유신이 이끈 5만의 나당연합군이 최후의 결전을 벌인 황산벌 전투를 한눈에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호국관은 1, 2층으로 나뉘어 있는데 1층 4D영상관에서는 하루에 총 6회 상영되고 있다. 3D 입체영상과 음향시스템, 모션 시뮬레이터를 통해 관람객들이 입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

된다. 2층에는 다양한 유물 전시와 각종 영상패널, 전투무기 사용 체험 등을 통하여 관람객은 직·간접적으로 선조들의 민족정신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전시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데 3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토요일에 10인 이상 단체라면 누구나 ‘충혼의 숲’ 체험을 신청하여 참가할 수 있다. 5월부터 10월까지 주말마다 초등학생이라면 누구나 국궁과 승마를 체험할 수 있어 아이들에게 평소와는 다른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백제군사박물관 뒷산에 오르면 황산벌 전투 현장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논산시가 조성한 솔바람길은 숲속을 거닐 수 있어 산책하기 아주 좋은 코스이다.

백제군사박물관은 월요일은 휴관이며 문화관광해설사가 근무하고 있어 언제든지 신청하면 자세하고 친절할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주변에는 논산 8경 중 하나인 탐정호가 있다. 최근 조성된 수변 데크길과 공원이 있어 주말에 가족단위로 많이 찾고 있고 조그만 카페들이 자리 잡고 있어 연인, 친구들도 많이 찾는 명소가 되고 있다.

논산시 백제군사박물관으로 고고!



시간과 공간이 공존하는 자연속 미술관, ‘당진 아미미술관’

당진문화원
강대원



‘당진시립미술관’이 없는 것은 못내 아쉽지만 그래도 위안이 되는 건 전국적으로 유명한 사립미술관이 바로 당진에 있다는 것이다. 당진시 순성면 성북리에 위치한 아미미술관(관장 박기호)은 몇 년 전부터 입소문을 타기 시작해 지금은 당진을 대표하는 명소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였다. 폐교(유동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하여 지금의 아미미술관으로 탈바꿈하였는데 2016년 기준 누적 방문객이 12만 5천 명이었다고 하니 웬만한 도시의 화랑보다 많은 사람들이 오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꼭 이러한 수치적인 통계가 아니더라도 아미미술관에 오면 누구나 특색 있는 미술관 분위기와

주변 정취에 눈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까 생각된다. 오래된 폐교가 주는 아늑함과 정겨움 그리고 현대적 경향의 미술 작품들이 함께 어우러져 매우 독특한 느낌을 자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흔히 미술관이라고 하면 웬지 기품 있고 격조 있는 예술적 공간을 떠올릴 테다. 어찌 보면 아미미술관도 이러한 미술관의 공간적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나 (구)유동초등학교가 갖고 있던 고유한 건물의 성격을 크게 훼손하지 않고 이를 유지, 보존하는 가운데 미술관이라는 특성을 그 안에 불어넣었기에 이질적이지 않고 지금과 같은 유명세를 얻고 있지 않나 싶다. 그래서 아미미술관의 빼그덕 거리는 넓은



나무 바닥, 오래된 창문살과 뿌연 창, 하얀색의 미술관 건물을 뒤덮은 초록색 넝쿨담쟁이는 관리 소홀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자연친화적이며 어딘지 모르게 방문객을 보듬어주는 따스함마저 느끼게 해주고 있다.

아미미술관은 다양한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어린이 미술제, 아미의 작가들 같은 다양한 기획 전시를 연중 선보이고 있다. 또한 날 좋은 날 미술관 앞 잔디운동장에서는 작은 음악회가 열리는 등 계절별로 크고 작은 이벤트가 열리고 있기도 하다.

현재 아미미술관에는 11월 1일부터 오는 2018년 3월 30일까지 ‘창조하는 자 공감하는 자’라는 타이틀로 박현두, 임선희, 백연수, 정지웅 작가의 기획전시가 열리고 있는 중이다. 한편 박기호 관장은 내년 경 아미미술관 내에 또 다른 공간을 만들어 공개할 예정이라고 한다.

당진 아미미술관

주소: 충남 당진시 순성면 남부로 753-4(성북리 158)

문의: 041)353-1555

홈페이지: amiaart.co.kr

천년의 역사가 고스란히 살아 숨쉬는 ‘보령 박물관’

보령문화원
김진경



보령은 산과 바다 그리고 섬이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다. 또한 보령의 역사도 우리 세대가 누리고 후손도 누려야 할 도도한 흐름이 있다. 2013년 개관한 보령문화의 전당 내 보령박물관이 있다.

보령박물관에는 선사시대 역시 보령에도 사람이 살았던 흔적인 고인돌을 보고 체험할 수 있다. 신비한 색으로 그려 시대의 이야기를 담아내며 영롱하게 빛나는 도자기가 시선을 잡아당긴다. 국가 사적지로 지정된 충청수영성과 복원된 영보정은 천하제일의 절경임을 자랑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보 8호이며 통일신라 최고의 문장가 최치원이 무염국사의 일대기를 지은 비문인 낭해화상

백월보광탑비(890년, 진성여왕 4년)와 성주사의 웅장했던 모습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보령 최고의 특산품인 남포오석으로 세워져 1,100여년이 지나도 탑비는 변하지 않았다.

또한 일제 강점기 일본의 식민지에 저항한 선비들의 정신도 엿볼 수 있다. 시간의 골목에서 보령의 근대 전시는 추억 속으로 빠지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역사 공부도 충분하게 하고 박물관을 나오면서는 재미있는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트릭아트가 기다리고 있다.

보령박물관 야외에는 최근 장항선 개량공사 중 보령 주산면 간치역 동쪽 구릉지에서 발굴 조사된 굴식

돌방무덤이다. 구릉남쪽의 경사진 면을 수평으로 파서 판 모양의 돌을 세워 관을 넣는 널방을 만들고, 방 한쪽에 통로를 만든 뒤 넓은 돌로 천장을 엮고 흙을 덮어 만든 무덤을 말한다. 출입구는 돌을 다듬어 문틀을 만든 후 넓은 돌을 이용하여 막았다. 복원된 무덤의 뚜껑은 안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지금은 유리로 덮여있다.

이런 형태는 백제가 도읍을 부여로 옮긴 후 만들어졌으며 보령에서 확인된 무덤은 원형이 잘 보존된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그리고 보령 남부지역이 백제의 세력권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듯 역사와 정신의 흐름과 재미가 아기자기하게 어우러진 보령박물관이 있어 보령을 찾는 색다른 즐거움을 제공하고 있다.



검이블루 화이불치의 보고, ‘부여 정림사지박물관’

부여문화원
김 인 권



찬란했던 백제 불교와 사비도성의 중심 사찰이었던 정림사(定林寺)를 주제로 하여 건립된 박물관이 있으니 바로 부여 정림사지박물관이다. 아주 특별하게도 폐사지를 주제로 건립되었고 정림사지 동쪽에 위치한 관계로 매년 30여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고 있다.

정림사지(사적 제301호)는 남북일직선 상에 중문, 탑, 금당, 강당, 회랑이 배치되는 전형적인 백제가람 양식을 갖추고 있다. 이 가람배치 양식은 그대로 일본에 전해져 사천왕사(四天王寺)의 모델이 된 것으로 유명하다. 절터에는 우리나라 최고의 석탑인 국보 제9호 백제오층석탑과 보물 제180호인 고려시대 석조비로사나좌불이 있다. 이 절은 백제 제26대 성왕 16년(660) 사비천도 무렵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며 1942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10차례 걸쳐 발굴조사가 시행되어 유적의 전모가 밝혀졌다.

정림사지박물관은 총 150억 원의 예산을 들여 5년간 공사 끝에 2006년 9월 개관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건물형태는 특이하게 중앙홀을 중심으로 진입로, 전시실, 관리실이 사방으로 날개를 뻗은 것처럼 배치되어 있는데 이는 불교의 상징인 ‘卍’자를 본떠서 설계된 결과이다.

전시실은 1층에 백제불교문화관, 정림사지관, 2층에 기획전시실 및 야외 전시장이 있으며, 부대시설로는 영상실, 휴게실, 뮤지엄 샵, 야외 공연장 등이 갖추어져 있다.

이곳의 전시는 기존의 나열식을 벗어나 영상, 패널, 모형 등 다양한 전시기법으로 백제 불교예술 문화의 발달과정을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도록 설치해 놓았다. 특히 백제불교의 중심이었던 정림사를 1/12로 축소하여 복원 전시해 놓은 정림사지관은 이 박물관의 꽃이라 할 수 있는 필수 코스이다.

정림사지는 관북리유적과 부소산성, 능산리고분, 나성과 더불어 2015년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그 효과로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다. 정림사지박물관은 폐사지가 주는 독특한 정취와 함께 검이블루 화이불치(儉而不陋 華而不侈, 검소하되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되 사치스럽지 않다) 라는 백제미학을 아낌없이 감상할 수 있는 명소라고 할 수 있다.



우주로 출발! ‘서산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

서산시 문화시설사업소장
이 경 식



도비산 자락이 내려온 인지면에는 우리 문화시설 사업소에서 운영하는 서산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이 있다. 저녁하늘이 푸르다가 검어지면서 하나둘씩 별들이 떠오를 때쯤에, 과학관은 방문객들로 매우 북적거린다. 망원경이 있는 관측실에서는 엄마, 아빠와 같이 온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감탄사를 내뱉고, 그들의 눈에는 우주가 담긴다.

서산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이하 ‘과학관’)은 일반 시민들에게 천문학을 교육하고, 하늘에 떠 있는 별자리를 살펴보며, 그 속에 숨어 있는 우주를 관찰하는 장소이다. 노을이 지면서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저녁에 식사를 조금 서둘러 하고, 과학관을 방문하면 우주로 출발할 수 있다.

과학관은 시간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홈페이지(<http://ryu.seosan.go.kr>)에서 미리 관측시간표를 확인하고, 이용하고자 하는 시간보다 10분~15분 정도 일찍 도착하여

매표하고 이용하는 것이 좋다. 관측시간표는 매달마다 바뀌는데, 태양이 저무는 시간이 매달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9월부터는 저녁 7시 30분부터 야간 프로그램을 시작하며, 동절기(12월~2월)에는 밤이 길어서 저녁 6시부터 프로그램 이용이 가능하다.

천체관측 프로그램은 먼저 1층의 천체투영실에서 디지털 천체투영기를 활용하여 천문학과 우주과학에 대한 영상을 본다. 투영실에 들어가 자리에 앉으면, 의자가 뒤로 움직이면서 누워서, 둥근 천정에 떠오른 영상을 마주한다. 상영하는 영상물에 따라 의자와 바닥이 움직이면서 영상의 내용을 실감나게 느낄 수 있다.

천체투영실이 끝난 후 담당 직원과 같이 2층의 천체 관측실로 올라가서 밤하늘의 별자리들을 살펴보고, 망원경으로 직접 우주를 관찰한다. 달이 떠 있는 때에는, 달을 관측할 수 있고, 달이 없는 때에는 별자리 속에 숨어 있는 성운이나 성단들, 그리고 태양계의 행성들이 떠 있는 때에는 행성들의 모습도 관측할 수 있다. 주말보다는 평일에, 날씨가 맑은

저녁에 방문하는 것이 좋은데, 주말에는 야간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관측하기 위해 줄을 길게 서야 해서 그렇다. 그래서 과학관에서는 천체관측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1회 40명으로 인원을 한정해서 운영한다.

관측실에 들어간 이용객들은 대부분 달의 크레이터(운석구멍)가 신기한지 망원경에서 눈을 땔 줄 모른다. 맨 눈으로는 하나의 별로 보이지만 망원경을 통해 보면 금빛과 푸른빛으로 빛나는 한 쌍의 커플별, 알비레오(Albireo, 고니자리 두 번째 별)도 관측할 수 있다. 하늘 꼭대기에는 직녀성(Vega, 거문고자리 첫 번째 별)이 밝게 빛나고 있지만, 가을이 무르익으면 페르세우스자리 속에 숨어 있는 별들의 무리, 성단들과 안드로메다 공주의 별자리에 있는 안드로메다은하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유명한 안드로메다은하, 지구에서 250만 광년의 거리에 있다. 수많은 은하들 중에서 가장 크고, 밝고, 잘 보이는 은하이다. 관측이 끝나고 1층으로 다시 내려오면, 전시교육실과 류방택 사료관을 자유롭게 둘러볼 수 있다.

류방택 선생은 서산 양리촌 출신으로, 호는 금헌(琴軒)이라 하며, 《천상열차분야지도》의 제작에 크게 기여한 인물이다. 《천상열차분야지도》는 1395년(조선 태조 4년)에 제작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천문도이다. 1,467개의 별을 밝기에 따라 크기를 다르게 그렸으며, 별과 별 사이에 선을 그어 총 283개의 별자리를 표시하였다. 하늘의 별의 모습을 돌에 새긴 천문도로 국보 제228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서울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다. 《천상열차분야지도》의 제작에 기여하신 금헌 류방택 선생을 기념하여, 과학관의 이름이 [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이 되었다. 그래서 과학관에는 옛 우리 조상들의 천문기상 관측유물들을 ‘전시교육실’에 전시하고 있고, 류방택 선생의 일대기를 정리한 ‘류방택 사료관’이 있다.

금헌 류방택 선생이 보았던 밤하늘의 모습을 오늘날에는 과학관에서 천체망원경으로 직접 우주를 관찰하고 여행할 수 있게 되었다. 우주를 살피고 관찰하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중에서 장차 선생과 같은 천문학자가 되어 밤하늘의 별처럼 밝게 빛나는 이가 나타나기를 소망한다.

서산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

입장료: 어른 3,000원, 청소년(7세~18세) 2,000원
(서산시민 및 명예시민은 신분증 등을 확인하고 50% 관람료 할인)
(6세 이하 어린이,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유족과 가족, 장애인 및 보호자 1명,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서산시민이면서 막내 자녀가 미취학 아동인 세 자녀 이상 가족 등은 관람료 면제)
주소: 충남 서산시 인지면 무학로 1353-4
문의: 041-669-8496
홈페이지: <http://ryu.seosan.go.kr>

[Tip] 서산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 방문

1. 과학관 홈페이지에서 관측시간표를 미리 확인하고, 몇 회 프로그램을 이용할지 정한 후 이용하고자 하는 시간보다 10~15분 일찍 도착한다.
2. 낮이든 밤이든 날씨가 좋아야 관측이 가능하다. 흐리거나,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관측이 되지 않으며, 이 때 관측실은 견학으로 운영한다.
3. 주간에는 태양관측을, 야간에는 천체관측을 진행하는데, 만일 야간프로그램을 이용한다면 어린이들이 미리 낮잠을 자고 오는 것도 좋겠다.
4. 천체관측실은 난방을 하지 않으니 늦가을~겨울에는 따뜻한 옷을 입어서 추위에 대비한다.
5. 야간 천체관측 중 사진촬영을 하면 플래시 불빛이 다른 사람들의 관측을 방해하므로 사진 촬영을 하지 않는다.
6. 달은 초승달에서 보름달 때까지만 관측할 수 있으니, 달이 떠 있는 시기를 음력으로 확인하고 방문한다. 음력 4일 ~ 17일까지가 저녁에 달이 떠 있는 때이다. 6~7세의 유아나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가 있는 가족이라면, 달이 저녁에 떠 있는 때 방문하는 것이 좋다.
7. 관측 전이나 후에 우주 관련 과학 동화를 어린이에게 책으로 읽게 하거나, 천문학이나 우주과학에 대한 만들기를 진행한다면 어린이들의 흥미를 높일 수 있다.
8. 유아의 경우 48개월이 넘어야 천체관측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천체투영실이나 관측실이 깜깜하게 운영되어 유아들이 무섭다고 울거나, 보채거나, 심한 경우 놀라거나, 구토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어 출입을 제한하고 있으니 미리 알고 방문하는 것이 좋다.

한국최초의 성경전래지에 세워진 ‘서천 성경전래지 기념관’

서천문화원
문치운



충남 서천군 서면 마량포구에 위치한 성경전래지 기념관은 조선 후기 1816년(순조 16년) 마량진 갈곶에 서해안 탐사목적으로 일시 정박한 영국 함선 Alceste호의 선장 머리 맥스웰 함장(Murry Maxwell)으로부터 우리나라 침사 조대복에게 성경이 전해진 것을 기념하는 곳으로 성경 전래의 역사를 연구, 전시, 교육, 체험하는 공간이다.

기념관은 연면적 1,374㎡(약 415평)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꾸며져 있으며 1, 2층은 전시관, 3층은 카페, 4층에는 다목적실(예배실)이 있다. 전시관에는

영국에서 제작된 킹 제임스 바이블 원본과 시기별 한국어 성경 번역본 등이 전시돼 있으며 성경이 전래된 과정을 애니메이션으로 볼 수 있고 전래당시 알세스트호의 선실을 재현해 놓은 공간도 있다. 3층 카페는 서해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좋은 전망을 갖추고 있고, 4층 다목적실은 소규모 세미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있다.

기념관 인근에 성경전래지 기념비와 영국범선, 조선의 판옥선 조형물이 있는 야외기념공원도 있고, 마량포구 벽면에는 성경전래 고증벽화도 그려져 있다.

기념관이 있는 마량포구 주변에는 아펜젤러 순직 기념관과 동백정이 있고 마량포구는 서해안이면서 해돋이 해넘이를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시기별로 각종 수산물축제도 있다.

성경전래지 기념관은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근현대사에 관심 있는 방문객들에게도 좋은 여행지가 될 것이다.

성경전래기념관

주소: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서인로 89-16
문의: 041)951-1816
홈페이지: <https://bible1816.modoo.at/>



추사의 발자국을 따라... '예산 추사기념관'

예산문화원
이수영



우리 예산문화원은 예산에서 태어난 조선왕조 후기의 실학자이며 대표적인 서예가인 추사 김정희 선생을 추모하기 위한 '추사 김정희 선생 추모 전국 휘호대회'를 주최·주관하고 있다. 추사 휘호대회는 매년 추사고택에서 개최되는데 추사고택은 추사 선생이 태어나고 자란 곳으로 1700년대 중반에 지어진 53칸 규모의 양반 대가집이며 충청남도 지정 유형문화재 제43호로 지정되어있다.

추사고택 주변에는 추사 선생의 묘소와 월성위 김한신·화순옹주의 합장묘와 정려문, 천연기념물 제106호인 '예산 용궁리 백송' 등 추사 선생과 관련된 유적뿐만 아니라 추사 김정희 선생이 남긴 작품을

보존하고 추사 선생의 서예 정신과 위대한 업적 등을 알리기 위한 추사기념관이 있다.

추사 기념관은 2008년에 건립되었으며 규모는 연면적 1,576㎡이며, 지하 1층과 지상 2층으로 구성되어있다. 지상 1층에는 상설전시실, 영상실, 체험실 등이 있다. 관람료는 무료이고 하절기(3월~10월)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동절기(11월~2월)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관람이 가능하다.

추사 기념관의 상설 전시실에는 추사 작품 46점이 연중 전시되고 있으며, 서예 작품뿐만 아니라 추사 선생의 초상화, 유품 등의 전시품들을 관람할 수 있다. 또한 추사 선생의 생애와 정신을 딱딱한 분위기에서

벗어나 아이들도 흥미를 가질 만한 모형, 홀로그램, 사진과 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관람객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전시실을 관람한 후 영상실에서 추사고택과 추사 선생에 대한 종합영상을 보며 전시실 관람을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며 체험실에는 추사 선생이 조예가 깊었던 금석학의 기본인 탁본 뜨기와 추사 선생의 대표작인 세한도 그리기 등

다양한 체험활동이 준비되어 있으니 아름다운 추사고택과 더불어 문화유적 탐방객에게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

예산군 추사 기념관
주소: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추사고택로 249
문의: 041)339-8241~4



아산정린박물관을 다녀와서

온양문화원
김 형 기



보고싶은 친구야!

흰눈이 내리는 크리스마스에 공항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오늘은 기다리던 첫눈이 내리는걸 보고 있으니 더 더욱 친구가 보고 싶네!

친구가 고국을 떠난지도 어언 20년이 다 되었네!

대한민국도 눈부시게 발전하고 고향에도 산업화의 물결로 그 옛날 친구와 내가 통학하던 도로도 함께 뛰어놀던 골목길도 없어지고 이제 아산도 빌딩만이 웅장하게 서 있다네!

막상 친구가 고향을 방문한다 하여 어떤 곳을 보여줄까 어디를 가야할까 많은 생각을 하다 마침 우리 지역에 아산 정린박물관을 보여주면 친구가

좋아할 거 같아 내가 미리 방문 해봤어.

충남 아산시 배방읍 휴대리길 142번지에 자리 잡고 있는 아산 정린박물관은 충청남도 제31호 제1종 박물관으로 대지 1,600평 부지위에 상설 전시관, 기획전시관(미술관), 체험교육실, 야외전시실, 발굴 체험장, 도서관과 예쁜 카페까지 있는 아름다운 박물관이야.

박물관에는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걸친 각종 기와가 전시 되어 있는데 설립자이신 공주대 문화재보존학과 서정호 교수님이 20대 후반부터 20여년간 각종 기와들을 수집해 오셨어.

수량만 해도 1만 2,000여점으로 국내 최대 규모 이고 형태와 문양의 다양성에서도 귀중한 자료로 지역

시민은 물론이고 학계에서도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 또한 토기, 고려청자, 조선백자와 각종 공예품 및 유물도 함께 전시하고 있어서 어린이들이나 옛 추억을 회상하시는 어르신들도 많이 방문해서 구경하고 체험도 하고 아산 최고의 명소라는 구나.

1층 기획전시실에서는 근대사 자료, 박물관소장 작품 전시, 예술작가 특별전 또는 지역 미술가 공예가 초청 특별전을 하고, 방학기간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험전시도 하는 등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었어.

마침 내가 방문한 날에는 특별 전시로 유시원 작가님의 서양화를 전시하고 있었는데 아주 실력이 뛰어나고 수준 높은 작품을 작가님의 설명으로 들으니 한층 더 이해가 되더라고.

처음 보는 신기한 유물들로 가득 차 있는 2층 전시실에는 와전류 500여점과 삼국시대부터 통일 신라, 고려, 조선시대는 물론 동아시아의 유물을 한 눈에 볼 수 있고 옛 선조들의 우수한 건축양식을 알 수 있는 암막새 수막새 장식기와 등 다양한 쓰임새의 토기류 석조유물까지 그 시대의 생활문화와 예술적 특징을 시대별 나라별로 잘 정리해 관람하기 아주 편하게 관람했어.

밖으로 나오니 야외전시장에는 고인돌을 비롯해 신라시대 조선시대의 탑과 석조물 석인상 석조, 주춧돌, 석탑 등이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조선시대에 온 듯 한 착각이 들었어.



어린학생들이 앉아 무언가를 열심히 그리기에 다가가 보니 체험프로그램으로 왕당문양 그리기, 단청 문양 그리기 등 다양한 체험을 하고 있었어.

아산 정린박물관은 다문화가족을 위한 문화행사, 장애우 가족을 위한 심리상담 및 문화행사 지역 기업체, 관공서, 교육원 등과 협력망을 구축하여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도 하고 스토리가 있는 문화 산책을 통해 지역 주민이 편안히 찾아올수 있는 박물관으로 성장하고 있어.

한국전통의 건축역사 및 과학 예술을 교육할 수 있고 와전과 선조들의 지혜를 전달할 수 있는 전문 박물관으로 성장하고 다양한 문화 콘텐츠 개발 및 수준 높은 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차별화된 박물관, 명품박물관으로서의 위상을 높이면서 지역주민의 문화적 가치 증진 도모와 지역문화 관광자원을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는 곳이야. 친구가 공항에 내리면 제일 먼저 이곳 아산정린박물관을 소개해 주고 싶어.

가장 한국적이고 소박한 정이 살포시 느껴지는 이곳 우리의 주거생활문화의 향수를 그리워하게 하는 이곳 에서 그 옛날 추억속의 소년으로 돌아가 보면 어떨까?

아산정린박물관

주소: 충남 아산시 배방읍 휴대리길142

문의: 041)549-4005

이용시간: 동절기 10시-17시

하절기 10시-18시(일요일 휴관)



찰나의 힐링 공간, ‘천안 한 뼉 미술관’

천안동남구문화원
곽 승 일



문화예술 공간이 부족했던 천안에 최근 들어 규모는 크지 않지만 시민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고 비용부담도 없는 시설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천안문화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한 뼉 미술관이다.

한 뼉 미술관은 공공기관의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 시민들이 생활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전시공간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도입됐으며 서북구청과 동남구청 임시청사에 설치됐다.

서북구청 별관의 작은 갤러리는 당초 선거 관리 위원회로 사용되었다 이전하면서 생긴 유휴공간을 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시공간으로

리모델링하였고 천안삼거리갤러리는 천안삼거리 공원 내에 위치한 차량등록소 건물 3층에 있어 공공기관을 이용객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문화 예술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대부분의 문화시설이 도심으로 집중되고 있는 현실에 이 두 곳은 특별한 문화시설이 없는 인근 주민들의 문화생활 커뮤니티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바 이다.

개관 이후로 꾸준한 전시회를 열어 매달 새로운 작품을 선보이며 지역 작가는 물론, 학생, 주민자치 센터 자치프로그램 수강생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이끄는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예술을 꿈꾸는 누구에게나 기회를 준다. 또한 신인작가

발굴과 다양한 시민의 예술 활동을 독려하고 그동안 전시의 기회가 적거나 제한적이었던 지역동호회나 지역예술인에게 전시의 기회를 제공함으로 인해 더 쉽고 친숙한 소통을 복돋으려 하고 있다.

또한 소규모 공간으로 ‘공감’을 중요시 하는 갤러리인 만큼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도 진행할 예정이며 대학이 많은 천안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청년 작가들의 작품도 적극적으로 전시하여 공감과 소통을 이끌어내려 한다.

이러한 소통에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긍정적인 반응들이다. 작은 갤러리를 찾아오는 방문객들은

천안지역 내 문화 예술관련 종사자들, 참여 작가와 지인들뿐 아니라 구청 주변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도 궁금증과 기대감으로 한 뼉 미술관은 힐링의 공간으로 주목되고 있으며 꾸준히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한 뼉 미술관은 천안시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와 이용이 가능하며 대관 신청공고 및 신청서 등 자세한 내용은 천안문화재단 홈페이지(www.cfa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017년 전시 대관신청은 이미 마감인 상태이며 2018년 대관신청은 추후 천안문화재단 홈페이지에 공고 할 예정이다.

작은 갤러리

2017년 전시일정

전시명	기간
박천순 꽃 그림전	09.12~09.23
한국폴리텍 4대학 아산 캠퍼스 시각 디자인과 졸업전	09.26~09.30
끈으로 엮어보는 아름다움(전통매듭)	10.11~10.25
p.순간의 기록(도예)	10.28~11.09
천안서화회전	11.14~11.18
디딤돌 나들이 두 번째(한지공예)	11.19~11.24
상명대학교 서예전	11.28~12.05
소소한 이야기(도예)	12.07~12.19

※ 운영시간: 09:00~18:00 무료관람
※ 점심시간: 12:00~13:00

삼거리갤러리

2017년 전시일정

전시명	기간
제18회 수사모 정기전	08.29~09.09
타블로 정기전(회화)	09.11~09.29
선유정서회전(서예)	10.10~10.14
황교성 개인전(회화)	10.16~10.27
파시몽전(회화)	10.31~11.10
시형회 20수작전	11.13~11.24
제16회 목요드로잉 정기전(누드드로키)	11.27~12.09
안희라, 이정림 전	12.11~12.24

※ 운영시간: 10:00~19:00 무료관람
※ 점심시간: 13:00~14:00



세계적인 미술도시 천안의 품격. ‘천안 아라리오 갤러리’

천안시서북구문화원
신 광 식



아라리오갤러리(ARARIO GALLERY) 앞의 조각공원에는 영국 작가 '데미안 허스트'의 6m 짜리 작품 〈찬가〉와 〈채리티〉가 서 있다. 프랑스 작가 아르망이 페 차축으로 만든 〈백만 마일〉을 비롯한 국내외 작가들 작품 60여 점도 전시되어 있다. 작품의 예술성에 대한 판단은 차치하더라도 각각 수억 원에서 수십 억 원에 이르는 작품들이 길가에 전시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세인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아라리오갤러리 5층 건물 바깥에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두 남년의 모습을 표현한 설치작품이 있다. 천안을 방문하는 외지인들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하다.

그것을 만든 작가는 아라리오갤러리 회장 씨킴 김창일 화백이다.

1989년부터 2000년 3월까지 그는 1만 6천 여 평의 터미널 부지 내에 조성된 조각공원과 함께 아라리오 미술관을 운영했다. 2003년 1월에는 갤러리를 신축, 재개관 하면서,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작가들이나 현재 진행되는 미술의 중요한 흐름을 짚어볼 수 있는 기획 전시에 중점을 두겠다'고 했다.

그동안 파격적인 컬렉션과 전시로 현대미술계의 주목을 받으면서 컨템퍼러리 아트를 중심으로, 다양한 미술작업들의 전시를 위해 마련된 공간임을 천명한

것이다. 특히, 기존의 갤러리들과는 달리, 영화관, 백화점, 터미널 등과 함께 야외 조각공원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심공간에 위치함으로써, 대중과 함께 문화가치를 공유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를 피력하였다.

연건평 1천5백여 평에 갤러리 면적만 9백여 평에 달하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갤러리는 강판을 외장재로 사용한 독특한 외관과 유리, 스테인레스, 대리석 등으로 이루어진 스몰시티 내의 다른 건물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느티나무가 우거진 외부의 조각광장과 멋진 어울림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작가들의 개인전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술의 중요한 흐름들을 짚어갈 수 있는 광범위한 기획전시 등을 통하여, 미술계는 물론 일반 대중과 함께 호흡하는 갤러리로서, 문화

가치를 대중과 공유해 나가겠다는 장기 비전도 제시하고 있는 점에서 중소도시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선진화된 복합 문화예술 공간이다.

도시에 터를 잡고 살아가는 대다수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뿐 아니라 가족과 이웃 모두가 묻혀 살고 있는 주변 삶의 여건들에 대한 주체적 관심이다. 문화환경에 대한 의식전환이다. 특히 도시구조상 이미 대부분의 구역에서 물리적 공간이 한정된 천안시의 경우 그 폐쇄적이고 획일화된 공간 속에 안주하기 쉬운 오류를 막아 주는 그 무엇이 꼭 필요하다.

이러한 때, 한정된 지역에 차원이 다른 문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즐길 수 있는 삶의 여유를 만들어 주고 있는 멋진 풍경에의 유혹 아라리오갤러리, 이렇듯 좋은 갤러리를 안고 있는 천안, 그래서 지금 우리는 행복하다.



청양 속 백제의 흔적을 찾아
‘청양 백제문화체험박물관’

청양문화원
강원구



백제문화체험박물관은 장곡사로 가는 길에 있는 구)수정초등학교 칠곡분교에 세워진 박물관으로써 외관은 백제시대 토기를 굽는 가마를 형상화하여 만들었다. 박물관 내부는 유구한 역사의 흔적을 담은 원삼국시대 토기가마(분향리)와 백제시대 토기가마(학암리)를 이전 복원하여 웅장하게 재현되어 있는 토기가마전시관이 자리하고 있으며, 물레를 돌려 직접 손으로 빚어보는 백제 토기 만들기 체험과 나만의 머그컵 만들기, 타일 만들기 체험이 있다. 이어서 청양역사실은 청양지역의 선사시대부터 현재까지의 역사와 유적에 대한 설명과 유물을 전시한 곳으로

백제시대 웅진, 사비 도읍기의 수도권으로서의 역할과 국난의 위기마다 나라를 수호하고 충과 절의의 기개를 표출했던 청양지역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살펴볼 수 있는 곳이다. 특히 국내에서 유일한 공자상과 면암 최익현 선생이 일제에 의해 체포되어 대마도로 유배되는 과정을 석지 채용신 선생이 그린 유배도 등 귀중한 유물을 전시하고 있다. 코리아나화장품의 유상옥 회장은 본인의 수집품인 도자기 및 토기류 등의 유물 209점을 기증하여 이에 청양군은 유상옥 회장 기증실을 마련해 주었다. 또한 청양지역에 있었던 충남상회, 청양극장, 미당백화점 등 1960년대



추억의 거리를 재현해 놓은 포토존에서는 옛 추억을 상기시키고 오랜 세월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세대를 떠나 모두에게 인기가 많다.

우리나라 최대 금광산인 구봉광산을 재현해 놓은 금광체험관에서는 청양지역이 우리나라 광물자원의 보고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전시하고 있으며,

사금채취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야외에는 세계 최대의 크기인 황금 福거북은 칠갑산을 배경으로 백제시대 한 선비가 거북알을 나눠받는 꿈을 꾸 후 대대손손 장수했다는 거북바위의 전설이 전해내려 오고 있어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다시 살아난 바다, ‘태안 유류피해역사 전시관’

태안문화원
안은선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에 위치해 있는 태안 유류피해 역사 전시관은 2007년 12월 7일 태안 기름유출 사고 때 전국 각지에서 모여 기름 제거작업에 나섰던 자원봉사자의 고마움을 기리고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한 공간으로서 2014년 태안군과 지역주민의 협력으로 조성되었다.

전시관에는 유류피해 당시 사용했던 방제 도구와 기름에 덮여있는 돌, 자갈, 갯벌 등이 전시되어 있고, 복구 작업에 참여했던 자원봉사자들의 모습 등 극복 과정이 사진에 생생하게 담겨있다. 당시의 아픔과 치유의 과정을 모두 체험할 수 있는 공감과 역사의 장으로 그때의 감동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전시관에 방문하면 해설사의 설명을 통해 당시 상황을 다시금 느끼고 자연의 소중함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고, 건물의 옥상 태배전망대로 올라가면 회복된 태안 해안 국립공원의 아름다운 경관을 한눈에 보며 그 마음을 바로 느낄 수 있다.

폐기된 군막사를 고치고 태배전망대라는 이름을 붙여 유류피해 복구에 많은 도움의 손길을 주었던 123만 명의 자원봉사의 아름다운 마음에 보답하고자 조성된 태배전망대에서 내려다보는 경관은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아름다운 해안경관 풍광 17곳 안에 들만큼 그 경관이 매우 아름답다.

아름다운 자연경관뿐만 아니라 경관을 따라 해변

길이 조성되어 있어 그 아름다움을 배로 느낄 수 있다. 7개 코스로 조성되어 있는 태안 해변길 중 2코스인 소원길에 포함된 태배길이 그 해변길이다.

의항해변~의항항 일대로 6.4km 약 2시간 코스로 이루어져 있는데, 태배길이 더 의미 있는 것은 군사 지역으로 출입이 제한되어 있던 곳이 유류피해 사고 때 자원봉사자들이 걸었던 길이 됨으로써 그 고귀한 정신을 이어받아 회복된 자연경관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고자 태백길을 재구성해 개방하게 된 것이다. 태배길의 6개의 길에도 순례길, 고난길, 복구길, 조화길, 상생길, 희망길로 이름 붙여 유류피해의 아픔과 극복 의지를 모두 간직한 치유의 의미를 담고 있다.

역대 가장 큰 피해를 끼친 국내 해상 기름유출 사고로 기록되고 있는 태안 기름유출 사고가 2017년 올해 극복 10주년을 맞은 만큼 태안에 방문해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함께 그 의미를 되새겨 보는 더 뜻깊은 시간을 갖길 바란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꾼 재난 극복의 숭고한 국민정신을 계승하는 공간으로써 백이십삼만의 아름다운 마음이 모여 빛어낸 태안 유류피해 역사 전시관에 많은 방문과 관심을 부탁한다.

태안 유류피해 역사 전시관

문의: 태안해양국립공원사무소 소근분소
041)673-1065

이용시간: 주말, 공휴일 10시~16시 30분
휴관일: 월~목요일(사전 예약 시 임시 개방)



고즈넉한 공간의 멋, ‘홍성 이응노의 집’

홍성문화원
조 남 민



‘이응노의 집(고암 이응노 생가 기념관)’은 홍성의 명산인 용봉산과 월산의 중간지점에 있는 고즈넉한 공간에 자리하고 있다. 약 20,600㎡의 대지에 1,002㎡의 건물이 주변의 평화로운 풍경과 잘 어우러져 있으며 전시홀, 북카페 다목적실 등의 전시시설과 초가로 지은 생가, 야외 전시장, 산책로 등을 갖춘 기념관이자 미술관이다. 2005년에 생가복원 및 기념관 건립 계획이 수립되어, 생가는 2009년, 기념관은 2011년에 완공을 보게 되었다.

현대적인 아름다움과 건축의 미를 갖춘 기념관은 2013년 대한민국 건축문화대상을 받았고, 생가를 둘러싼 아름다운 주변의 산책로는 일년내내 관광객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곳이다. 특히 연꽃이

만개한 여름날이면 전국에서 찾아오는 낯선 사람들을 생가 앞 연못에서 쉽게 만날 수 있으며, 어쩌면 홍성 사람들 보다 외지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려진 홍성의 비경으로 손꼽히는 곳이다.

고암 이응노(1894~1989)는 홍성에서 태어나 자신의 무대를 세계로 넓힌, 한국을 대표하는 미술계의 세계적인 거장이다. 장르와 소재를 넘나드는 실험정신으로 미술세계의 독창성을 찾아 예술혼을 불태웠던 한국 화단의 진정한 거목이었다.

해강 김규진으로부터 서예와 사군자를 배웠고 일본으로 건너가 양화의 기초를 익혔으며 해방후에는 홍익대 미대 교수를 역임하였다. 이후 프랑스로 건너가

한국의 전통서화에 기초한 작품을 발표하여 유럽예술계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1960년대에 터진 ‘동백림 사건’에 연루되어 옥고를 치렀으며 이후 다시는 고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프랑스에서 생을 마감하였다.

생애를 통하여 남긴 약 3만점의 미술작품은 현재 전 세계 각지에 소장되어 전시되고 있으며 오늘날 미술계의 큰 귀감이 되고 있다.

“나는 그리면서 외로움을 잊었다. 아득히 지나가 버린 시절이 이렇게 또렷이 떠오르다니! 오늘도 내손은 붓을 잡고 내 눈은 당신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다. 지금도 그때처럼. 그린다는 것으로 나는 여전히 행복하다” (고암 이응노, 파케티 갤러리 개인전 도록 서문, 1971년)

고암 이응노 생가 기념관

주소: 충남 홍성군 홍북읍 이응노로 61-7
문의: 041)630-9232



제4회 풀꽃문학상 시상식 및 시가 있는 콘서트

정 지 은 _ 공 주 문 화 원

국민시가 된 나태주 시인의 「풀꽃」시를 기념하여 공주시가 지원하고 공주문화원이 주관, 풀꽃문학상 운영위원회(위원장 이준관)가 집행한 제4회 풀꽃문학상 시상식 및 시가 있는 콘서트가 10월 27일 오후 3시 공주문화원 강당에서 열렸다.

지난 5월부터 9월말까지 접수받은 총 81편의 근작시집 중 본상에는 안용산 시인의 『향기는 코로부터 오지 않는다』(천년의 시작), 젊은시인상에는 신효순 시인의 『바다를 모르는 사람과 바다에 갔다』(시학사)를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심사위원은 안용산 시인의 『향기는 코로부터 오지 않는다』이 선정된 이유에 대해 ‘전원적 상상력과 향토적 서정을 바탕으로 인생에 대한 깊은 성찰과 시대에 대한 예리한 비판정신을 담아내고 있으며, 결코 화려하지 않은 순수하고 서정적인 언어들로 웅숭깊은 시적 울림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했으며, 신효순 시인의 『바다를 모르는 사람과 바다에 갔다』가 선정된 이유에 대해서는 ‘현란한 수사와 지나치게 자의적이고 자위적인 언어 구사, 체험적 진솔성이 부족한 젊은 시인들의 작품과 달리 작품마다 균질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언어를 부리는 솜씨가 안정적’이라는 점에서 수상작 선정의 이유를 밝혔다.



본상 수상자 안용산 시인은 “알 수 없는 <너>가 있어 시를 썼고 시를 쓰다 보면 만나는 ‘너’가 있어 시가 되었습니다. 시를 쓰는 동안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힘을 실어주신 사랑하는 사람들과 격려를 주신 심사위원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고 했다.

젊은시인상 수상자 신효순 시인은 “시인이 되고 싶어 했던 오랜 친구는 제 등단과 풀꽃문학상 수상 소식을 듣고 누구보다도 자신의 일처럼 기뻐했습니다. 멀리서 시집을 읽고 누군가 전화를 걸어오면 그날은 내내 코가 찡하고 슬쩍슬쩍 웃음이 납니다. 제 시를 좋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이어 2부 행사에는 공주풀꽃문학관 개관 3주년을 맞이하여 이창석 지휘자가 지휘하는 공주 Kammer Ensembles의 연주로 다채로운 공연이 이어졌다.

한산모시 규방공예

문 치 윤 _ 서 천 문 화 원

서천지역은 예로부터 저산팔읍중 한 곳으로 모시가 많이 나고 거래가 활발한 지역이다. 그 중 한산모시는 조선 예종때 생저(생모시)가 토산품공물로 지정되었으며 모시의 대명사로 불릴 만큼 우수하였다. 또한 한산모시짜기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하였다. 우리 문화원에서는 지역특산물인 한산모시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알리고 다양한 공예품과 생활소품을 제작하고 전통문화를 활성화 시키고자 한산모시 규방공예 전수교육을 실시하였다.

규방공예란 양반집 규수들의 공간이었던 규방에서 침선(바느질)을 통해 공예품과 생활 소품을 만들던 것에서 시작되었다. 전통적으로 오방색 (파랑, 하양, 빨강, 검정, 노랑)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염색 천을 사용하기도 한다.

모시공예 교육은 기초 바느질부터 시작하여 모시 공예에 꼭 필요한 뽕솔기법을 전수받는다. 뽕솔 기법이란 모시처럼 얇은 천을 바느질할 때 앞, 뒤가 없이 바느질하는 방법이다. 모시공예 수강생들은

이 뽕솔기법으로 한산모시, 생저, 염색모시를 이용하여 책갈피, 홀치기보, 조각보, 괴불 등을 만든다. 장시간 앉아서 하는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수강생들은 높은 집중력으로 작품을 만들었다.

강좌를 통해 만든 공예품들은 문화원에서 개최하는 ‘기별포 문화제’에서 전시회도 열었으며 수강생들 모두 뛰어난 실력으로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모시공예교육의 강사이신 주경자 선생께서는 각종공모전에서 수상경력이 있으며, 한국예술문화명인(모시뽕솔)으로 규방공예지도사 자격증도 보유하고 있다. 개인전을 국내 및 해외에서 몇 차례 열 정도로 뛰어난 실력은 모시공예 강좌가 인기가 있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서천문화원은 한산모시 규방공예 전수교육을 통해 섬세한 미의식을 표현하고 생활소품을 만들어 실생활에 사용함으로써 그 가치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강좌를 통해 또 한명의 명인이 탄생하길 기대해 본다.



대한민국 영상문학 제1호 임희재를 추억하며

손 홍 영 _ 금 산 문 화 원

얼마 전 ‘도깨비’라는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큰 히트를 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한국 드라마의 전 세계를 향한 활약상이야 그간 너무도 많이 들어온지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도 했지만 분명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드라마 강국답게 매일매일 쏟아지는 드라마의 수가 엄청나고 그 드라마들을 볼 수 있는 채널 또한 다양하게 준비되었다. 실제로 TV채널을 돌리다 보면 드라마가 하지 않는 때를 찾기가 힘들 정도이다. 그렇기에 경쟁도 심해서 드라마의

시청률은 10프로 정도만 되어도 엄청난 수치라 한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이다. 시대가 다르다고는 하지만 70프로가 넘는 시청률을 가지고 있는 드라마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 드라마 제작자들은 어떤 표정을 지을까?

바로 ‘아씨’라는 드라마이다. 이 드라마의 극본을 집필한 사람이 바로 오늘 소개할 금산 남이면 성곡리 출신의 임희재 선생이다. 1919년 12월 생인 임희재 선생은 어렸을 적부터 문학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공부를 하던 중 영상문학을 접하고



제5회 임희재문학제

다양한 시나리오를 집필하게 된다. 대표작인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마부’을 포함한 105편의 작품을 집필하였는데 특히 마부라는 작품은 1961년도 베를린국제영화제에 출품되어 특별 은곰상을 수상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한국 영화가 세계무대로 진출하는 길잡이가 되기도 하였다. 이후 TV 드라마 ‘아씨’라는 한 시대를 관통하는 대표적인 드라마로 대한민국 영상문학계에 큰 발자취를 남기고 생을 마감하게 된다.

이같이 대한민국의 초기 영상문학을 이끌어온 금산 출신 문학가인 임희재 선생을 추억하기 위해서 금산 지역의 문인들이 그간 조용하게 열어오던 임희재문학제를 2012년부터 금산문화원에서 그 명목을 이어받아 지금까지 꾸준히 문학제를

치러오고 있다. 대한민국 영상문화계에 큰 발자취를 남긴 임희재 선생을 추억하는 영상문학제로써 차츰 그 경력을 쌓고 있는 임희재문학제는 오는 2018년에는 지역 청소년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열린 문학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금산에 작은영화관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영상문학에 대한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금산문화원에서는 금산지역의 자랑거리이자 대한민국의 자랑거리인 임희재라는 인물을 더욱더 많이 발굴하고, 알릴 수 있는 수단으로써 임희재문학제에 더욱더 많은 공을 들일 것이다. 앞으로 계속해서 전 세계로 뻗어갈 한국의 영상문학과 함께 임희재문학제의 앞으로의 행보에 많은 기대를 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글을 마칠까 한다.



임희재 선생



논산문화원 문화학교, 시작하다.

고 승 연 _ 논 산 문 화 원



논산문화예술회관 2층 전체를 문화원이 사용할 무렵 1990년대까지 문화학교가 지속되다가 2003년에 들어서 문화학교는 공간이 없는 관계로 이후 10여 년을 실시하지 못했다. 지난해 신축 원사가 시민의 숙원으로 마련되면서 금년 4월 처음으로 상반기 문화학교가 개강되었다. 준비 기간은 짧았지만 도내 문화원과 주변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개강할 수 있게 되었다. 수강 접수 첫 날

모든 게 처음이라 얼마나 접수가 되고 누가 올지 등등 기대되고 약간의 긴장도 되었다. 그렇게 개강된 문화학교는 성인 6강좌(영화로 영어 배우기, 우리집 카페 바리스타 도전, 한국의 그림 화선지에 채우다, 비 오는 날의 수채화, 우리 춤사위 배우기, 삶이 행복해지는 시인되기), 영유아 4강좌(유아발레, 로봇코딩, 공예, 유아스피치)가 진행되었다. 상반기 16주 동안 진행된 문화학교는

7월 상반기를 종강했다. 처음이라 예상외로 폐강되는 강좌도 있었지만 설문지를 통해서 강사와 수강생들은 만족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상반기 동안 열심히 수강해주신 수강생 분들에게 수료증이 전달되었다. 수료증을 받은 수강생 분들의 얼굴에는 뿌듯한 미소가 띠었다. 그중 제일 눈에 띄는 분은 수강생 중 최고령자이신 삶이 행복해지는 시인되기 반의 성휘웅 어르신이다. 올해 연세가 85세인데 많은 연세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수강해주셔서 감사한 마음과 직원으로서 보람을 느꼈다.

상반기를 보완해서 하반기를 준비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 폐강 강좌를 새로운 강좌로 준비하여 좀 더 많은 강좌가 열리게 되었다. 수강생 분들의 적극적인 의견을 반영해 성인강좌로 시낭송, 정원 가꾸기, 그릇 빚기, 목공예, 규방공예, 칠보공예, 국악교실이 개설되었다. 새롭게 시작하는 만큼 수강 신청 열기도 뜨거웠다. 인기가 많은 강좌는 수강 신청 오픈 한 날 마감되기도 했다. 한국화 오종근

강사님은 10월 21일 진도군청에서 열린 제13회 전국 소치 미술대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셔서 한국화반 수강생 분들이 직접 축하해 드리기 위해 문화원장님과 직원들이 함께 진도에 다녀왔다. 그리고 12월 8일에는 삶이 행복해지는 시인되기 권선옥 강사님께서 전영택문학상을 받으셨다. 강사님들의 눈부신 활약에 기쁨과 함께 자부심도 느낄 수 있었다.

11월인 지금 하반기도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 이번 하반기 수업이 끝나면 12월 중 문화학교 수료식 및 발표·전시회가 열릴 예정이다. 한 해 동안 열심히 배운 만큼 만족스러운 성과를 이루고 직접 그리고 만들고 배운 것을 마음껏 뽐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발표회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내년을 준비하는 문화학교는 어느덧 마음속에 우리 문화원 짝이 되어있었다.



협력을 통해 기존 사업의 전환을 모색하다

강대원 _ 당진문화원

몇 년간 동일한 사업내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면 반복과 복습을 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다. 충남학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 학습자들 역시 충남 내에 살고 있는 터라 지역의 웬만한 유물, 유적지는 어느 정도 다녀본 터였고 더군다나 충남학을 신청한 수강생은 지역의 역사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인지라 강의 계획부터 탐방 등 획기적인 변화가 요구되었다.

그러던 중 충남역사문화연구원과 충청남도 문화원연합회 차원의 회의 및 교류가 있었고 이때 언급되었던 의견, 제안들 속에서 2017년 충남학 프로그램에 대한 새로운 구상을 하게 되었다. 바로 충남학과 당진학을 결합하여 진행하는 것과 탐방지 선정에 있어 충남역사문화연구원과 협력하여 진행하는 것이었다. 충남학의 경우 이미 정해진 강좌안이 있고 각 파트별 강사진이 구성되어 있는 터라 큰 변화를 시도할 수 없었지만 당진학과 탐방은 예외였다.

이번에 사업을 맡고 중점을 둔 부분은 바로 ‘현장성’이었다. 우선 탐방을 예로 들면 기존에 충남 각 지역의 역사적 유적지, 박물관 코스를 넣되 여기에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서 발굴 및 연구를 진행한 곳을 추가하여 그야말로 생동감 있는 충남 역사 탐방으로 일정을 잡았다. 1차 탐방으로 서산의 마애여래삼존상을 보고 인근에 있는 보원사와 해미읍성을 둘러보았는데 보원사와 해미읍성의 경우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서 발굴과 연구를 진행했던 곳으로 고고조사부 이호경 부장이 직접 현장에 나와 당시의 상황과 연구 결과 그리고 에피소드 등을 들려주어 탐방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되었다.

또한 당진학은 판에 박힌 문화재, 인물 등의 설명이나 소개에서 벗어나 원로 향토사학자의 지역 연구 사례부터 당진문화원에서 발간된 책을 집필했던 문화원 산하 당나루향토문화연구소 위원의 연구 계기, 과정, 성과 등을 다 같이 공유하는 자리를 만들어 지역학에 대해 소통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최근 ‘콜라보(Collaboration의 축약어로 공동작업을 뜻함)’라는 말이 많이 등장해 사용되었는데 문화원 사업에 있어서 다각도의 콜라보가 더해진다면 변화 무쌍한 사업 수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블링블링 보령오감 (保寧五感)

임명검 _ 보령문화원

평소 우리고장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아 나름 우리고장 탐구에 대한 학생동아리를 만들어 활동을 하면서도 늘 채우지 못한 지적 욕구로 고민하던 중 수강하게 된 보령문화원의 오감보령 강좌는 가뭄 속에 만난 단비와도 같았다.

오감보령 강좌는 보령 문화원 주관으로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진행된 사업으로 올해는 문화적 혜택으로 소외된 지역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없다는 점에 착안하여 지역 주민을 직접 찾아가 열리는 강좌로 보령시 웅천읍 웅천복지회관에서 6월부터 9월까지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에 실시하였다. 이론 강좌는 보령의 자연 환경을 시작으로 마지막 강좌인 한국 전쟁과 보령으로 총 16차시를 실시하였고, 현장 강좌는 보령의 문화 유적 등 총

4회의 현장 답사를 병행 실시하였다. 지역 여건 상 농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지라 일을 마치고 참여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매번 60여명의 청강생들로 강의실의 열기는 가득했고 나도 매 강좌마다 빠짐없이 참여하였다. 이번 강좌 중 가장 인상 깊은 강의로는 보령의 고인돌과 보령의 향일운동에 대한 강의였다.

고인돌은 우리지역에 300여기가 넘게 있으며 이 숫자는 고창과 화순, 강화도와 더불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다는 사실로 청동기 시대에도 이 지역이 분명 살기 좋은 지역이었다는 점을 알았다. 이 강의를 계기로 나름 고인돌에 관한 관심과 탐구활동을 하였고 학생들과 직접 고인돌을 설치하는 전 과정을 재현하는 융합수업을 통해



지금은 고인돌에 관해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수준이 되었다. 아쉬움이 있다면 2000년 12월에 유네스코지정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때 보령만 빠졌다는 사실이었고 앞으로 보령문화원과 힘을 보태어 보령의 고인돌이 추가 등재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또한 보령의 향일 운동 강의는 보령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하는데 충분했다. 일제 때 보령의 주산면 독립만세운동은 충남에서도 손꼽힐 만큼 일찍 일어난 곳으로 향일 의식이 열렬했고, 유럽 들이 파리강화회의에 글을 보내 독립을 호소한 파리장서 서명운동에도 충남에서 보령지역이 가장 많은 6분이 참여하였다는 사실은 보령에 대한

긍지를 갖게 하였다. 또한 며칠 전 세계문화유산 중 기록물 유산에 등재된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한 김광제 선생이 우리보령 출신이었다는 사실은 그간 보령에는 내세울 말한 인물도 없고 유홍 관광도시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지한가를 보여주기에 충분하였다. 앞으로 우리지역 보령에도 파리장서운동 기념비를 건립하여 우리지역사람 뿐만 아니라 타 지역 사람들에게 좋은 교육적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다.

올 해 보령문화원의 오감보령 강좌의 참여는 내 고장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 더 큰 애향심과 자부심을 갖게 하는 뜻깊은 기회가 되었다고 말하고 싶다.



음악을 통하여 주민과 소통 ‘부여청소년오케스트라’

이 미 영 _ 부 여 문 화 원



제15회 부여서동연꽃축제 '음악이 흐르는 궁남지' 연주회

우리 부여문화원이 운영하는 부여청소년 오케스트라는 올해에 제15회 서동연꽃축제, 사비야행, 제63회 백제문화제, 제4회 정기연주회 등 4차례의 연주회를 통하여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다. 한 해 동안 4차례나 연주회를 가진 것은 창단 이래 최고로 많은 연주 횟수로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으며 문화원의 위상을 높였다.

부여청소년오케스트라는 지역의 청소년들이

음악을 통해 꿈과 사랑을 키워 나가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난 2014년 7월 창단하였다. 오케스트라단 운영에는 악기 구입비와 강사료가 많이 든다. 다행히 한국마사회에서 운영하는 농어촌 희망재단 공모사업으로 4천5백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악기와 기자재를 구입하여 출범하였다.

예산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단원 모집은 예상외로 수월했다. 각급 학교에 홍보했더니 100여 명이 넘는 인원이 지원하여 70여 명의 단원을

선발하였다. 예산을 훨씬 뛰어넘는 지원자들을 보고 이들의 열망을 진작 해아리지 못한 부분에 반성이 되기도했다.

2017년 12월 20일 국립부여박물관 사비마루에서 농어촌희망청소년오케스트라 KYDO(KOREA YOUNG DREAM ORCHESTRA) 총감독이신 금난새 지휘자를 모시고 역사적인 창단 연주회를 가졌다. 창단 연주회를 마치고 청소년 단원과 학부모님들은 가슴 벅찬 감동을 느껴 기쁨의 눈물을 흘렸는데 지금도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

역사적인 창단 연주회 이후 해마다 2~3차례의 연주회를 가지면서 주민 속에 급속히 뿌리를

내려 올해 예상하지 못한 4차례의 연주회를 갖게 된 것이다. 청소년들이 활발히 활동하자 성인 오케스트라 창단 여론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드디어 지난 9월 성인 60여 명으로 구성된 부여 팝스오케스트라가 창단되어 올해 12월 창단 연주회를 갖게 된다. 청소년오케스트라와 성인 오케스트라의 두 기둥이 마련되어 척박하기만 했던 부여지역의 음악 발전은 매우 희망적이라 예측해 본다. 짧은 기간에 이렇게 발전하기까지는 농어촌희망재단·부여군·기현중기 박순진 대표의 지원은 물론 이철수 단장, 박복식 지휘자의 노력한 결과임을 밝힌다.



서산 벚가릿대 한마당

최 윤 경 _ 서 산 문 화 원

서산문화원(원장 이준호)은 지난 4월 8일(토) 오후 1시 서산중앙호수공원에서 『서산 벚가릿대 한마당』을 개최하였다.

벚가릿대를 세우고 쓰러뜨리는 풍습은 농촌마을의 풍년을 기원하는 대표적인 민속행사이지만 도시화와 함께 그 전통이 많이 사라졌다.

그러나 서산지역에는 아직까지 약 15개 마을에서 벚가릿대를 세우고 있으며 이러한 우리의 전통문화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도심 한복판에서 벚가릿대를 세우게 되었다.

본래 마을마다 정월 대보름에 벚가릿대를 세우고 이월 초하루 내리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서산 벚가릿대 한마당』에서는 만들어 세우고 쓰러뜨리는 일련의 과정을 이날 모두 보여주었다. 11개 마을이 중앙호수공원에 모여 마을의 특성 그대로 벚가릿대 11기를 세웠으며 제례와 지신밟기, 풍물 등을 재연



하여 관람하는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했다. 특히 민속분야의 권위자인 이필영(한남대 역사교육과 교수)와 이관호(국립민속박물관 민속연구과장)이 참여하여 서산의 벚가릿대 풍습에 대한 문화적 가치와 앞으로의 보존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2,000여명의 시민들이 행사에 참석한 가운데, 시민들은 우리 서산에 이런 풍습이 있는 줄 미처 몰랐다면 세워진 벚가릿대가 풍년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훌륭한 예술품으로도 보인다는 반응이다. 이날 세워진 벚가릿대는 13일까지 전시되었다.

이준호 서산문화원장은 “벚가릿대를 세우는 풍습은 우리의 오랜 민속임에도 불구하고 노령화로 점차 보존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벚가릿대의 민속적 가치를 재발견하고 무형문화재 지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보존·계승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예산문화원 짱!

이 충 환 _ 예산 문화원



우리나라에는 전국 방방곡곡 문화원들이 자리 잡고 지역민들에게 다양한 문화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려 전국 228개 문화원이 있으며 내년에는 증가하여 230여개에 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한국문화원연합회는 해마다 지방문화원의 날 기념식을 진행하며 228개의 문화원 종합평가를 실시한 후 1등인 대상에게는 국무총리상이 수여됩니다.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생길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문화원들은 지역사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일까? 또한 종합평가에서 1등한

문화원은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인가?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에 소재하고 있는 예산문화원은 1955년에 사설 예산문화원으로 개원하여 60여년의 세월을 지역민들과 동거동락하며 소통해왔습니다. 이런 역사와 전통을 지닌 예산문화원은 2002년 신축사로 이전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자리매김을 하였습니다. 2008년 현 예산문화원장인 김시운 원장이 제15대 문화원장으로 취임하여 예산문화원은 또 한 번의 과도기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이를 발판 삼아 급격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김시운 예산문화원장은 37여 년간의 공직 생활의 경험을 바탕으로 문화원의 행정 체계를 정립하였으며 지역사회문화진흥과 군민의 문화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문화원은 지역사회의 계발 및 문화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향토사를 조사 수집 및 보존하고 지역문화에 대한 향토사 출간 사업을 시행하며 다양한 지역문화행사 개최와 향토 민속행사를 발굴 및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뭐지? 예산문화원은 대표적으로 네 가지 분야에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 생애 걸쳐 이루어지는 평생교육시대로에 발맞춘 문화시민대학입니다. 예산문화원 본관에서는 문화학교 및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별관에서는 추사인문학교와 추사인문학 등 총 25여개의 문화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 강좌로는 월·화·수요서예, 추사서예, 민화, 한국화, 아코디언, 필라테스, 요가, 디지털카메라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학습할 수 있는 지역학 인문강좌입니다. 예산문화원에서는 3년째 충남학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작년부터 예산학 교재 편찬 사업에 착수하여 올해는 예산학 인문강좌를 신설하여 지역민의 학습욕구 충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추사체의 창시자이자 금석학의 대가이신 추사 김정희 선생의 고장다운 서예대회입니다.

예산군의 서예 역사의 꽃은 조선시대로 전기의 4대 명필로 꼽히는 자암 김구 선생과 조선 말기를 품미하였던 추사 김정희 선생입니다. 이 두 선생을 추모하기 위해 자암 김구 서예대전과 추사 김정희 선생 전국회화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추사회화대회의 장원은 대통령상이 걸려있는 만큼 많은 서예인들을 서예의 고장인 예산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지역민의 문화생활증진을 위한 작은 영화관인 예산시네마 운영입니다. 작은 영화관이란 좌석수 100석 미만인 소규모 영화관을 말합니다. 예산시네마는 2개관(사과관, 황새관)으로 좌석수 99석의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2017년 4월 12일 개관한 이래 많은 지역민들이 방문하여 내년 상반기에는 관람객수가 군민수(약 8만5천명)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산문화원은 지역민의 여가선용 및 문화수준 향상과 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하고 있으며 1500여명의 회원수를 확보하고 연령층에 맞게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노년층은 SMS로 중장년층은 SNS인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통해 다양한 문화소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은 2017년 전국문화원종합평가에서 1등인 대상의 영예를 안겨주었으며 예산문화원은 현실에 안주해 있지 않고 끊임없이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나눔의 따뜻함이 한 코 한 코에!

이 명 숙 _ 온양문화원



온양문화원 인근에는 대한노인회 아산지회와 아산시노인종합복지관이 인접해 있지만, 정작 어르신들의 손뜨개질(핸드니팅) 수업을 실시하고 있는 곳이 전무하여 2016년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지원 사업 중 문화활동가 양성사업에 지원하여 ‘뜨개질’이라는 문화창작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사업으로 “뜨개질로 사랑♥온기 나눔 할매들!”이란 사업명으로 처음 시작하게 되어 어르신들께서 드신 손뜨개 물품을 지역에서 태어난 신생아나 소외계층 어르신들께 물품을 전달

하는 수혜 위주가 아닌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수업이다.

그 옛날 어르신들 세대에 아버지가 입던 현 스웨터를 풀어 실을 둥글둥글 공처럼 뭉쳐 감아서 밤새워 가며 목도리도 짜기도 하고 병어리장갑을 짜기도 하고 모자도 짚었던 기억들을 생각하시게 된단다. 그 기억을 더듬어 어쨌죽지 아파가며 힘들게 한 코 한 코 떠서 만든 물품을 손자 손녀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재능기부를 하는 어르신들의 마음이 비단결같이 곱기만 하다.

처음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수강생을 접수받아

총 30차, 60세 이상 어르신이 참여하여 25명 정원으로 시작하지만, 우리 수업 진행에 뜻이 맞지 않아 1회, 2회 수업을 참여하시다 포기하시는 어르신들이 종 종 계셨지만 이제는 오래 열심히 수업에 참여하여 뜨개 기술을 배우시고 뜨개 물품은 문화원에 제출하여 기부하시는 것으로 알고 계시며 “내가 만든 뜨개 물품이 좋은 곳에 쓰인 다니 만족하고, 마음도 뿌듯하다”라고 늘 말씀해주셔서 감사하기만 하다.

첫해인 2016년은 지역의 행복키움 추진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뜨개 물품이 완성되는 대로 모아 한 달에 한 번 물품을 전달하고, 지역의 각종 축제에 참여하여 뜨개 물품 전시 및 판매를 실시 하였다.

특히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 주관 2016년 문화제전시 어르신문화프로그램 권역별 성과 사업에 참여하여 소장하고 있던 뜨개 물품을 판매하여 판매기금 70여만 원을 행복키움추진단에 전액 기부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이루기도 하였다.

2년 차인 2017년 올해는 아산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하여 우리 지역에 이주해 온 다문화 가족들에게 물품을 기부하기로 하여 매달 전달하고 있으며, 10월 지역의 축제 및 행사에 다수 참여하여 어르신문화프로그램 홍보와 우수성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올해는 지역의 특성을 살려 아산의 인물인

이순신 장군을 형상화 한 ‘소년 이순신’을 뜨개 수업으로 진행하여 만든 작품을 아산시평생학습 한마당 축제 부스에서 만 5세 이하 어린이에게 나눠 주어 지역의 인물을 홍보하는 한편 어르신들의 솜씨를 뽐내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또한 수업의 일환으로 현장학습을 진행하는데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송영예의 바늘이야기라는 곳에 찾아가 전국 뜨개 공모 전시회를 관람하여 작품 하나 하나 세세하게 들여다보고 뜨개 비법을 익히며 견문을 넓히고 보다 다양한 작품을 구상하는 등 현장학습을 실시하고 나면 마음속으로 부자가 되어 오는 듯한 기분을 가지시게 된단다.

어르신들 솜씨가 천차만별 다 다르시지만 한결같은 마음만은 정성과 사랑과 나눔의 실천이 고스란히 담겨 있고, 그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고령화 시대를 맞아 어르신일자리 창출 사업과 연계하여 경제적 안정과 삶에 활력을 더해드리고 싶다.

매주 목요일이면 뜨개질 삼매경에 빠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시다 11월이면 사업이 종료되어 무척 서운해하시며 “옛날에는 농 번기 지난 겨울철에 아랫목에 앉아 뜨개질 했었는데..... 겨울에서 초 봄까지 뜨개 수업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한마디씩 하시며 아쉬워하신다.

다시 한번 재능기부에 뜻을 같이 해 주시는 어르신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천안지역민의 오감을 자극하는 전국유적답사

곽 승 일 _ 천 안 동 남 구 문 화 원

천안시동남구문화원에서는 매해마다 상반기, 하반기 문화유적 답사를 시행하고 있다. 아우내문화원에서 천안시동남구문화원으로 명칭이 변경된 2011년도 이후부터 상반기(봄)와 하반기(가을)에 걸쳐 현재까지 꾸준히 진행되어오는 행사이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제천, 괴산, 여주, 청주, 강화도, 고창, 담양, 거창 등을 다녀왔고, 참가자는 본원의 임원 및 회원, 문화교실의 수강생, 지역민이 참가하였다.

올해 상반기 전라남도 담양 문화유적답사는 77명이 참석하여, 4월 26일 오전 8시 30분에서 문화원에 집결하여 오후 6시까지 답사를 진행 후 해산하였고, 답사 장소는 전라남도 담양군의 메타세콰이어 가로수길, 한국 대나무 박물관, 죽녹원 등을 다녀왔다.

메타세콰이어 가로수길

가로수길의 총 길이는 약 8.5km로 도로를 사이에 두고 양쪽 길가에 높이 10~20m의 메타세콰이어가 심어져 있는데 1970년대 초반 전국적인 가로수 조성사업 때 담양군이 3~4년생 메타세콰이어 묘목을 심은 것이 현재의 울창한 가로수 터널길이 되었다.

한국 대나무 박물관

박물관 소장품은 국산 죽제품 2,146점, 외국 죽제품 355점, 기타 54점 등 총 2,555점에 이른다. 전시실은 4개로서, 제1전시실에서는 대나무의 성장과정과 각종 자료 및 죽순을 이용한 식품, 문헌에 나오는 대나무의 효능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다. 제2전시실에서는 조선 말기에 궁중에서 사용했던 부채와 방건통 등 옛 죽제품과 중요무형문화재의 제품 등을 전시하고 있다. 제3전시실에는 현대와 과거의 실생활에 주로 이용된 대나무 여름용품, 무기류, 장신구 등을 전시한다. 기획전시실에는

1982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죽제품경진대회에서 입선한 제품들이 연도별로 전시되어 있다. 무형문화재전수관에서는 죽세공에 기능을 보유한 무형문화재가 기능 전수를 하며, 죽종장에는 한국에 자생하는 대나무 64품종이 식재되어 있다.

죽녹원

담양군이 성인산 일대에 조성하여 2003년 5월 개원한 대나무 정원으로, 약 16만㎡의 울창한 대숲이 펼쳐져 있다. 죽림욕을 즐길 수 있는 총 2.2km의 산책로는 운수대통길·죽마고우길·철학자의 길 등 8가지 주제의 길로 구성된다. 죽녹원전망대로부터 산책로가 시작되는데, 전망대에서는 담양천을 비롯하여 수령 300년이 넘는 고목들로 구성된 담양 관방제림과 담양의 명물인 메타세콰이어 가로수길 등이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생태전시관, 인공폭포, 생태연못, 야외공연장이 있으며 밤에도 산책을 할 수 있도록 대숲에 조명을 설치했다

그리고 하반기 경상남도 거창 문화유적답사는 80명이 참석하여, 10월 31일 오전 8시에 문화원에 집결하여 오후 7시까지 답사를 진행 후 해산하였고, 답사 장소는 경상남도 거창군의 거창문화원과 거창박물관, 사과 테마파크, 황산마을을 다녀왔다.

거창박물관

1989년 5월 거창유물전시관으로 개관하고 1993년 4월 거창박물관으로 승격되었다. 1997년에는 별관을 건립하였다. 총 1,200여 점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으며 95% 이상이 가야국에 속하였던 거창군 내에서 수집된 것이다. 대지 2,676평, 건평 250평 2층 한옥구조의 본관 제1전시실에는 선사시대 석기와 원삼국에서 고려 초까지의 토기류 300여 점, 고려 및 조선 시대의 도자기류 200여 점, 고려시대의 청동기 20여 점 등이 전시되어 있다. 이곳에 보존된 1864년(고종 원년) 판 《대동여지도》는 희귀본으로 경상남도유형문화재 제275호로 지정되었다. 제2전시실에는 1971년 거창군 남하면 둔마리에서 발견된 고려 초기의 둔마리 고분벽화 모형 및 가야 고분벽화 모형과 민속품 300여 점이 진열되어 있다. 야외전시장에는 고인돌·석탑·불상과 역대 거창군수령비 등을 전시하고 있는데 이곳에 전시된 송림사지석조여래좌상은 경상남도유형문화재 제311호로 지정되어 있다.

황산마을

황산마을은 18세기 중엽에 황고(黃巢) 신수이(慎守彝) 선생이 입향하면서 번성한 거창신씨 씨족마을이다. 황산 마을의 생성은 16세기 초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조선시대 영조 이후 인물이 연이어 배출되었다고

전해진다.

황산 마을에 들어서면 굽을 길을 따라 끝없이 뻗어 있는 아름다운 흙돌담이 눈에 들어온다. 오래되어 개발 보수되는 과정에서 석회가 섞인 다른 마을의 담들과 달리, 황산 마을의 흙돌담들은 순수하게 흙과 돌들로만 축조되어있다. 황산 마을의 담장은 대개 토석 담으로 담 하부는 방형에 가까운 제법 큰 자연석을 사용하여 진흙을 사춤하지 않고 대부분 메쌓기 방식으로 쌓았다. 이는 도로보다 높은 대지 내 빗물을 담 밖으로 자연스럽게 배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자연석으로 메쌓기 한 위에는 하부의 자연석보다 작은 20cm 내외의 돌을 담 안팎에 사용하여 진흙과 교대로 쌓아 올렸고 대부분 담장 상부에는 한식기와를 이었으며, 기존 담장과 달리 엇쌓기를 한 부분도 있다. 전반적으로 전통고가와 어우러진 활처럼 휘어진 전통 담장 길은 고즈넉하고 아늑한 느낌을 준다.

각 문화원들이 매해 다양한 방식으로 시행해오던 문화유적답사가 문화원에서 일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나에게서는 엄청 큰 행사로 느껴졌다. 그래서 처음 문화유적답사를 준비하면서 문화유적답사가 끝날 때까지 끊임없는 긴장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문화 역시 알아야하기 때문에 이번 문화유적답사를 다녀오면서 문화유적에 대한 흥미가 부족했던 내가 다시금 문화유적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고, 이번 문화유적답사로 인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앞으로도 이런 좋은 취지의 문화유적답사가 더 잘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칠갑색소폰앙상블 동아리

강 원 구 _ 청 양 문 화 원



청양군은 인구가 3만여 명밖에 안되지만 음악을 사랑하는 동호회들이 많고 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다. 그 중 으뜸은 청양문화원의 자랑인 이제 창단 5년째를 맞은 칠갑색소폰앙상블 동아리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 동아리는 순수 아마추어들의 모임으로 형제처럼 또는 가족처럼 돈독한 우의로 연령층은 30~60대로 직업 또한 다양하다. 한찬흠 단장을 비롯한 15명의 단원들이 빼어난 앙상블을 이루며 수준급 연주 실력을 갖춰 음악인들의 눈길을 끈다. 이들은 문화체육센터에서 매주 월요일에는 대전의 색소폰 연주자 이영민씨를 초빙하여 지도를 받고, 목요일에는 즐거운 마음으로 시간가는 줄 모르게 연습에 임한다. 연주 실력도 해가 갈수록 일취월장하여 스페인 무곡 ‘에스파냐 카니’나 ‘다뉴브강의 잔물결’과 같은 유명 왈츠곡, 가요와 동요 메들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곡들을 멋들어지고

소화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청양지역에서 치러지는 각종 행사에 단골로 출연하고 우리 문화원의 ‘문화나눔봉사단’ 일원으로써 문화적으로 소외된 분들을 위해 노인회관 및 요양원을 찾아 정기적으로 공연하는 등 연 30회 이상 연주회를 갖고 있다. 지난 9월 10일에는 청양군과 충청남도의 지원을 받아 제18회 청양고추구기자축제와 함께하는 제1회 청양사랑 전국 아마추어 색소폰 앙상블 경연대회를 열어 총 39팀의 573명이 참가하여 화려한 연주 실력을 보여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앞으로 우리 문화원의 칠갑색소폰앙상블은 회원모집에도 힘써서 문화봉사공연을 확대하여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생활 속 문화 확산을 실천할 것이며, 돌아오는 제2회 청양사랑 전국 아마추어 색소폰 앙상블 경연대회도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제13회 태안문화제 개최

김 가 램 _ 태 안 문 화 원



지역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며 행복을 전하고 있는 태안문화원에서 2년 마다 열리는 태안문화제를 성황리에 마쳤다. 특히나 제13회 태안문화제는 태안문화원이 올 해 초 신축이전을 한 뒤 열린 행사여서 더욱 뜻 깊었다.

11월 4일부터 5일까지 약 이틀간 열렸으며 서예, 그림, 공예 등 작품전시회와 공연, 체험 등 통합하여 함께 진행되었다.

첫날에는 행사의 시작을 태안군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읍내에서 펼쳐진 풍물거리공연을 시작으로 어린이 동요 대회에 출연한 아이들의 맑고 청량한 목소리와 귀여운 율동을, 전국국악경연대회에 출연한 국악인들의 멋있는 목소리와 연출이 관람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또한, 개막식 공연으로 예술인 공연이 열려 태안 예술인들의 공연을 비롯하여 가수 겸 뮤지컬배우인 박혜미씨가 출연하여 수준 높은 공연으로 관객들의 큰 호응과 많은 박수를 받았다. 공연과 함께 더불어 우리 고장의 예술인들이 참여한

태안예술인 초대전으로 서예, 그림, 공예, 서각 등 81점의 작품도 선보여 진행 되었다.

둘째 날에는 올 해 처음 열리는 태안군민과 함께 하는 수궁가 발표회와 정월대보름을 맞이하여 풍요를 기원하는 풍속의 벚가릿대놀이, 전통혼례, 태안군민들이 직접 가져온 물품을 소개하며 거래를 한 벼룩시장과 다양한 체험과 시식으로 구성된 체험부스운영, 태안군수기배읍면풍물대회, 우리 고장에서 많이 나는 바지락을 이용한 바지락까기대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태안역사문화골든벨과 초·중 미술실기대회, 설위설경발표, 추억의가요콩쿨 등의 행사와 태안 옛사진전시회, 관내 문학단체들이 펼친 시화전, 인근 지역의 설치미술 작품인 황발이 설치 미술 등으로 다채로운 행사가 더해져 더욱더 풍성한 예술제가 되었다.

앞으로 태안문화원은 2년마다 열리는 행사인 만큼 더욱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겨울을 맞이하는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다.

아름다운 동심과 오카리나의 선율에 빠지다~

김 숙 희 _ 홍 성 문 화 원



모두가 여유로운 주말을 즐겨야 할 시간! 유난히 주말 오전이 바쁜 이들이 있다. 귀에 익숙한 딱따구리 폴카와 도미니크 행진곡이 힘차게 울려 퍼진다. 다름 아닌 토요문화학교 꿈다락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청소년오카리나 오케스트라>단원들의 오카리나 연주이다.

토요문화학교 프로그램은 아동·청소년 및 그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학교 밖 주말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으로 문화예술을 이해하고 또래와 가족과 문화예술을 통해 소통할 수 있는 건전하고 매우 유익한 프로그램이다. 지난 4월부터 만난 15명의 우리 아이들... 처음엔 서로가 서먹했지만 몇 개월이 지난 지금은 모두가 한 가족이 되었다. 뜨겁던 여름 지칠 법도 한데, 여름방학이라 늦잠도 자고 싶었을 텐데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가 되면 어김없이 오카리나를 손에 들고 힘차게 문화원으로 뛰어 들어오는 아이들의 눈은 벌써부터 반짝이고

있었다. 어떤 아이가 간식 먹는 재미로 온다고 하여 한바탕 웃음바다가 된 적도 있다. 이렇게 아이들의 웃음과 푹뭉뭉한 눈을 바라보며 주말을 고스란히 내려놓았다.

따스한 봄날 홍성 국제 오카리나 페스티벌이 열렸다. 우리 아이들에게 오카리나에 대해 좀 더 많은 것을 보여주고자 이태리, 일본, 중국, 대만 등 세계 유명 오카리나 연주자들과 국내 유명 연주자들이 총 출연하는 오카리나 페스티벌 연주 퍼레이드에 참여시켰다. 아이들의 반응은 엄청 뜨거웠다. 내가 배우고 있는 오카리나란 악기에 대해 더욱더 자부심을 갖고 소중히 생각하게 되었다. 오카리나 페스티벌에 참여시킨 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라 생각된다. 오카리나 수업을 진행하면서 또 다른 볼거리, 즐길 거리를 만들었다. 다름 아닌 우리가 연주하고 있는 오카리나에 대해 정확히 알고자 오카리나를 제작하고 외국으로 수출하는 오카리나 공방 체험학습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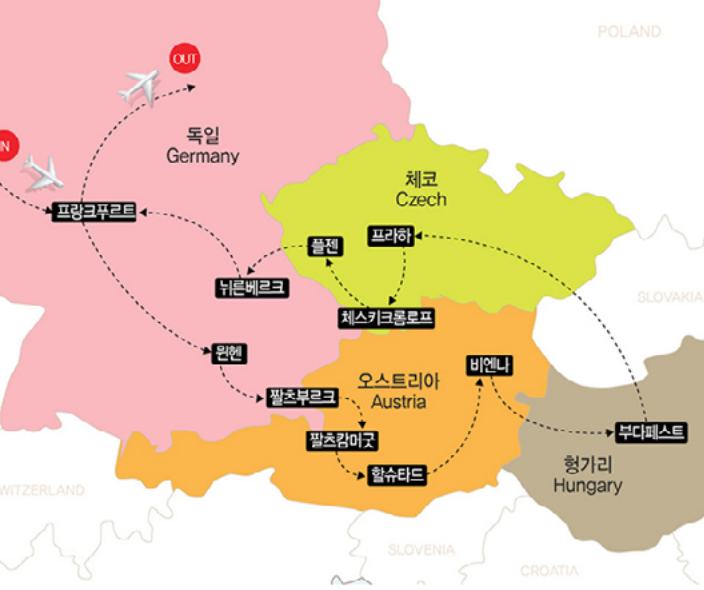
오카리나를 만드는 흙에서부터 만들어지는 과정과 오카리나의 종류와 가마에서 굽기까지 모든 것을 체험하고, 내가 직접 만든 세상에서 하나뿐인 오카리나를 만드는 시간도 가졌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아이들은 오카리나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 토요일이면 더 일찍 일어나 문화원으로 오는 아이들이 늘었다. 그렇게 스스로 오카리나와

함께하는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줄 수 있는 또 한 번의 계기를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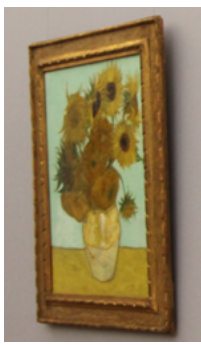
홍성문화원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며 산책을 즐기는 사계절 아름다운 역재방죽이 있다.

홍성문화원에서는 해마다 연꽃이 피는 여름밤이면 <역재방죽 달빛 데이트>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홍성군 내 문화예술단체들과 지역에선 접할 수 없는 변검마술과 팝페라 등의 공연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화려한 무대에 우리 아이들의 오카리나 합주 실력을 뽐낼 기회를 주었다. 아이들은 처음으로 무대에서 연주한다는 부담감을 표현했지만 많은 사람들과 가족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설레임을 보이며 더 열심히 오카리나 합주 연습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였다.

드디어 첫 무대에 서는 날, 걱정과는 달리 우리 아이들은 부담감을 날려버리고 신이 났다. 가족들과 많은 관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 있게, 멋지게 그동안 배운 오카리나 연주를 시작했다. 예상외로 너무도 잘한 아이들에게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우리 아이들은 더욱더 음악활동에 대한 자신감과 긍지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진행은 참으로 잘한 일이라 생각된다. 우리 아이들의 아름다운 마음과 오카리나의 아름다운 선율은 문화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오래오래 기억될 것이다.



음악과 함께한
동유럽의 행복한(同行) 연수!



공주문화원장 최창석

독일의 관문 프랑크푸르트로 시작한 동유럽 여행

우리 탐방단은 11월 9일(목) 13시 인천 국제공항에서 출국 신고를 마치고 프랑크푸르트행 KE 905편을 탑승 오후 2시경 유럽을 향한 출발을 하였다. 항공 운항 정보에 고도 10,000m 시속 800Km로 서쪽을 향해 날아가는데 그 궤적을 보니 인천 - 중국 선양 - 몽고 울란바토르 - 시베리아를 지나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상공을 통해 동유럽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한국과의 시차는 8시간 느리기 때문에 8시간을 벌었지만 한국과 낮과 밤이 바뀌었다. 이런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시차 적응이다. 독일 시간으로 11시 반 쿤츠부르크라는 조그만 도시에 도착해 여장을 풀었다.

둘째 날. 창밖은 푸른 초원이다. 밀밭인지 아니면 목초지인 것 같기도 하고 산들은 마지막 단풍을 자랑하고 있는데 날씨는 잔뜩 구름이 끼고 비가 오락가락하는 날씨이다. 처음 방문지는 뮌헨. 뮌헨은 1255년 비텔스 바흐 가문에 의해서 도읍이 된 후 선제후인 막시밀리안 1세부터 경제가 발전되기 시작하여 독일 제2의 도시로 성장하였다. 1972년 뮌헨 올림픽이 열린 바 있으며 요즘에는 9월 말에서 10월 초에 세계적인 축제인 맥주 축제(October Festival)가 열림으로 세계인의 이목을 끌고 있다.

맨 처음 찾은 곳이 근대 회화관(Neue Pinakothek - 이와 비교하여 이곳 뮌헨에는 Alte Pinakothek - 고미술관. Modern Pinakothek - 현대미술관 등이 있다). 루드비히 1세의 명에 의해 지어진 건물로 천장이 넓고 그림마다의 간격이 적당해서 관람하기에 좋다. 21번 방에 근대의 대표적인 미술가 반 고흐, 모네, 세잔느, 마네 등의 그림이 있다고 해서 우리 문화원장 모두들 가서 기념 촬영을 하였다. 중학교 미술 교과서에서 보았던 고흐의 '해바라기' 작품을 보니 정말 감개가 무량하다. 그 밖에 마네의 <아틀리에의 아침>, 고갱의 <타히티 여인들> 등의 작품이 있었다.

마리엔스 광장(Mary's Squire)은 뮌헨 관광의 핵심이다. 주변에 두 개의 이슬람 모스크 같은 지붕의 건물이 마리아 성당이고 광장의 중앙에 자리 잡은 뮌헨의 신청사는 1909년에 완성된 네오고딕 양식 건축으로 웅장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다.

음악의 나라 오스트리아와 금지 높은 한인 문화회관

셋째 날, 구름이 잔뜩 낀 흐린 날씨 비가 오락가락하지만 그 구름 사이로 평화로운 유럽의 풍경이 펼쳐지고 오스트리아로 접어들어서는 알프스 연봉에 눈이 하얗게 쌓여 산 정상은 백색, 산 중턱은 아직 다 떨어지지 않은 붉은색의 단풍, 평지는 푸른 초원으로 삼색의 조화가 잘 어울린다. 먼저 찾은 곳은 아름다운 바로크 양식인 미라벨 정원,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에서 주인공 마리아가 아이들과 도레미 송을 부르며 뛰어놀던 곳이다. 가느다란 빗줄기 속에서 마지막 단풍을 자랑하고 있는 정원이 더욱 정겹다.

잘츠(Salt)는 소금이요 부르크(Brug)는 성이란 말이다. 이곳 주변의 소금광산에서 나는 소금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예술, 문화 활동이 꽃피워 왔다. 우리가 케이블카를 타고 오른 호엔잘츠부르크 성은 산꼭대기에 있는 요새지로 성에 오르니 주변 모두가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내려오는 길에 모차르트의 생가와 그가 세례를 받았다는 대성당을 외관으로만 보았다.

사운드 오브 뮤직의 배경지 잘츠감머гут은 알프스의 자연과 볼프강 호수의 주변 마을들이 어우러진 멋진 곳이다. 먼저 차로 모차르트의 외가인 장그트 길겐 마을로 이동한 후 돈가스로 점심을 하였는데 한국 관광객도 많이 눈에 띄었다. 이어서 유람선을 타고 볼프강 호수를 가로질러 할슈타트 쪽으로 이동하는데 볼프강 호수 주변의 경관이 정말로 일품이다. 거기에서 코끼리 바위 찾기, 황소의 십자가, 결혼의 십자가 등 배에서는 한국어로 호수 주변의 경관과 섬들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해준다. 비록 초겨울이지만 저지대의 푸른 초원에는 알프스 소녀 하이디가 뛰어놀 것 같은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이 모든 아름다움이 집결된 곳이 바로 잘츠감머гут의 진주"라 불리는 할슈타트이다. 인구 800명의 작은 마을이지만 1997년에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지구상에서 손꼽히는 명승지이다.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도 대한항공의 선전화면에 나온 바 있으며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중국이 자기 나라에 짝퉁 할슈타트를 만들었을까? 우리는 케이블카를 타고 잘츠감머гут의 전경을 감상하고 할슈타트를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에 올랐다. 호반에서 보는 경관하고는 또 다른 오스트리아의 자연을 마음껏 누릴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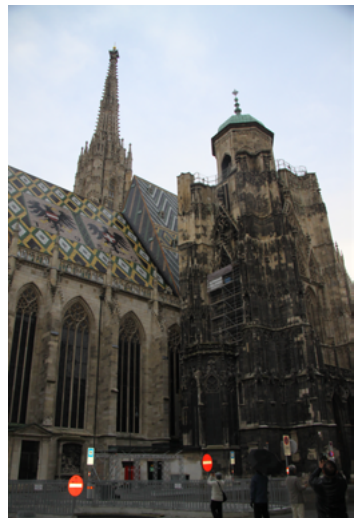
세시 할슈타트를 출발해 비엔나로 향하였다. 비엔나는 한때 전 유럽을 지배하던 합스부르크 왕조의 근거지로 합스부르크가의 영화와 함께 번성한 도시로 그 당시 만들어진 왕가의 여름 별장 쉐브른 궁전 등이 지금까지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으며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음악의 도시로서 곳곳에 아름다운 오페라 하우스나 음악당들이 즐비한 곳이다. 차 안에서 아마데우스 영화를 감상하였다. 지난번에도 본 영화지만 모차르트의 일생을 그린 영화로 별 다섯 개의 명화이다. 언제 보아도 감명적인 영화이다. 4시간 가까이 이동하여 한식당에서 된장찌개를 먹고 음악당으로 향하였다. 음악의 도시 비엔나에 왔으니 당연히 클래식을 감상하고 가자고 모든 원장님들이 원한 것 같다.

음악당은 비엔나 로얄 오케스트라(Wiener ROYAL ORCHESTER)인데 가이드 말로는 비엔나에서도 정상급 오케스트라라고 한다. 주로 모차르트와 요한 스트라우스 콘서트를 주로 하는 곳으로 오늘 프로그램도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 〈터키 행진곡〉 또 모차르트의 가장 유명한 작품의 하나인 세레나데 〈아이네 클라이네 나흐트무지크-작은 밤 음악〉 등 주옥같은 음악과 요한 스트라우스의 왈츠곡들이 연주되며 발레리나들이 춤을 추고 성악가들도 나와 노래를 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중간에 퍼스트 바이얼리니스트가 딱총을 가지고 나와 새소리가 날 때 새총을 쏘면 무대에 장난감 새가 떨어져 청중들을 웃기는 유머를 연출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연주되는

곡이 비엔나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감미로운 음악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 강〉이다. 요한 스트라우스가 전쟁에 패한 오스트리아인들을 위로하고 활기를 불어 넣기 위해 만든 이 곡은 클래식 사상 가장 아름다운 왈츠곡으로 모두가 인정하는 곡이다. 오스트리아의 모든 방송국은 매년 해가 바뀌는 첫날의 0시에 이 아름다운 왈츠곡을 연주해 국민들에게 해가 바뀌었음을 알려준다고 한다. 모든 오스트리아 국민들이 사랑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곡을 “가사 없는 오스트리아 애국가”라고도 한단다.

아침 식사 후 먼저 구시가지의 중앙광장 옆에 있는 성 슈테판 대성당을 찾았다. 빈의 상징인 이 사원은 고딕 양식으로 12C 후반에 착공하여 300여 년의 오랜 세월에 걸쳐 완공되었다.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로 기록된 성 슈테판을 기리기 위해 만든 성당이라 이런 이름이 명명되었고 슈테플이라 불리는 첨탑은 높이 137m로 73m 정도의 높이에 테라스가 있는데 나선형 계단을 통해 오를 수 있고 이곳에서 빈 시가지를 조망할 수 있다. 이 성당에서 빈 시민들은 새해를 맞고 있으며 특히 유명한 것은 음악의 신동 모차르트가 결혼을 하였고 장례를 치른 곳이다.

오스트리아 한인 문화회관. 오스트리아에 사는 한인 동포들이 자발적으로 3억 원을 모금하여 2012년 5월 3일 개관한 문화관인데 다뉴브강가 도나우 파크에 자리 잡은 아주 멋진 건물이었다. 한국의 유명한 건축가 승효상 씨가 자연과 잘 어울리게 설계하고 건축하여 비엔나에서도 가장 훌륭한 야외 예식장으로도 이름이 났단다. 건물 안에 호수 레스토랑이 있는데 건물이 호수면의 약간 아래에 있어 의자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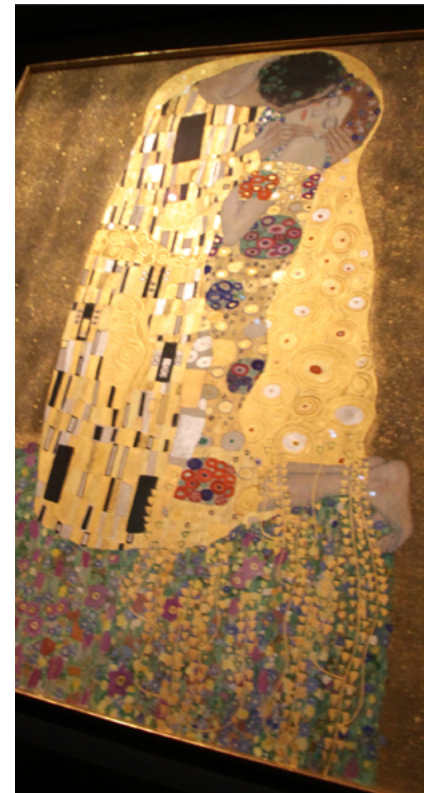
앉으면 내 눈과 비슷한 호반을 바라보며 식사할 수 있는 멋진 곳이다. 개관식에는 반기문 총장도 참석하여 축하해 주었다고 하고 길가에는 자랑스럽게 한국인의 거리가 명명되었는데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와 그 부인 오스트리아 출신의 프란체스카 여사의 이름을 딴 거리(Franzeska-Donner-Rhee-Weg)였다.

올해 개관 5주년 기념행사에 '2017 한국문화축제'를 대대적으로 개최했다고 한다. 자체의 메소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한국 영화와 드라마(태극기 휘날리며, 대장금, 왕의 남자, 명성왕후 등)의 OST콘서트를 열기도 하고 사물놀이 공연, 태권도 시범 등 한국 문화를 알리는 큰 행사를 치루었다고 한다. 요즈음의 문화회관의 활용 시간표를 보니 사물놀이, 한국어 강의, K-POP 댄스, 한글학교 등이 개강되어 한국 문화를 오스트리아에 알리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미국땅에서 정말로 대한민국의 긍지를 잃지 않고 열심히 살면서 대한민국의 국위를 선양하는 분들에게 가져간 선물을 전달하고 고국의 소식들을 전하였다.

쉐브른 궁전(아름다운 샘이란 의미)으로 향하였다. 1896년부터 1913년까지 합스부르크 왕가의 여름 별장으로 사용된 바로크 양식의 아름답고 웅장한 이 궁전은 베르사유 궁전을 모방하여 만들었지만 베르사유 궁전 못지않게 호화롭고 아름다운 궁전으로 인정받고 있다. 1,441개의 방과 수많은 분수, 연못 등 아름다움이 뛰어나고 루이 14세의 부인 마리아 앙투아네트의 모친 마리아테레지아가 주로 많이 사용한 궁전이다. 이 여자는 16명의 자녀를 낳아 별명이 “출산드라”이며 그 중 2명의 황제와 5명의 황후를 만들었다니 그 정치적 능력이 대단한 사람이며 한술 더 떠 나머지 자식들은 신부나 수녀를 만들어 그 당시 성속(聖俗)의 권력을 다 차지하게 했다는 것이다. 당시의 합스부르크 왕가의 권세가 바로 이 여자의 정략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벨레데레 궁전’ 사보이 왕가의 오이겐 장군을 위해 만든 궁전으로 오스트리아 바로크 건축의 거장 힐데브란트가 설계, 건축하여 1723년 완공하였다. 정문을 들어가면 흰색의 스피크스 여인상이 신비로운 모습으로 건물을 지키고 있는데 이 여인의 유방이 매우 풍만하고 고혹적이라 그냥 지나치기가 아쉽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그러한지 지나가는 관광객들이 모두가 이 부분을 만져 새카맣게 되었다. 우리도 늙은 나이에 쑥스럽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인상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념사진을 한 장씩 찍었다.

이곳에 있는 대표적인 그림이 클림트의 〈키스〉, 〈적장 홀라페르네스의 목을 들고 있는 유디트〉와 에곤 쉴레의 〈죽음과 소녀〉 등이다. 구스타프 클림트는 오스트리아의 화가로 전통적인 미술에 대항해 ‘빈 분리파’를 결성한 화가이다. 관능적인 여성 이미지와 찬란한 황금빛, 화려한 색채 등을 특징으로 하며 성과 사랑, 죽음에 대한 알레고리로 많은 사람들을 매혹시킨 화가로 우리나라 예술의 전당에서 특별전을 연적도 있었다. 그의 작품 중 최고의 걸작이 〈키스〉인데 비엔나 공항에는 “이 그림을 보기 전에는 비엔나를 출발하지 마세요”라고 쓰여 있을 정도이다.





야경이 너무나 멋진 헝가리 부다페스트

우리는 오스트리아를 떠나 헝가리로 향하였다. 헝가리는 북쪽의 카르파티아산맥, 서부 오스트리아의 알프스 지역, 남쪽은 디나르 알프스산맥으로 둘러싸인 동유럽 중앙 분지의 대부분으로 전 국토의 75%가 저평원지대이다. 이 평원의 목초 지대를 ‘푸스타’라 부르며 각종 농산물과 축산물이 풍부하다.

소련의 지배에서도 꾸준히 자유화 운동이 일어났던 나라이며 음악가 리스트의 고향이고 폴리처의 고향 나라이다. 헝가리로 향하는 중 우리는 부다페스트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요한 스트라우스의 왈츠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를 감상하였다.

헝가리의 수도 부다페스트는 도나우 강을 사이에 두고 왕궁이 있는 언덕을 중심으로 한 부다 지구와 건너편의 상업지구인 페스트 지역으로 형성된 인구 200만이 넘는 대도시이다. 도나우 강을 따라 30여 Km에 걸쳐 펼쳐지는 이 도시는 “동유럽의 장미”, “도나우의 진주”라는 말로 불리는 아름다운 도시로 자연과 고건축이 잘 어우러지는 도시이다.

부다페스트에서 맨 먼저 들른 곳은 영웅광장. 이곳 영웅광장은 1896년 헝가리 건국 1,000년을 기념하여 건립된 것으로 중앙의 36m 높이에는 가브리엘 천사가 조각되어 있다. 이어서 식사를 마치고 다뉴브강의 야간 유람선을 탑승하였다. 강 건너 바로 앞에 보이는 것이 바로크 양식의 웅장한 건물이 헝가리 왕궁이다. 13세기에 세운 궁전인데 2차 대전 때 파괴된 것을 복구하여 지금은 국립박물관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페스트 지구에 있는 네오고딕 양식의 웅장한 건물이 국회의사당인데 영국의 국회의사당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큰 의사당이다.

야간에 돌아본 다뉴브강의 유람선 여행은 파리 세느강의 야경 못지않게 무척 아름다웠는데 이곳 야경을 파리, 홍콩의 야경과 함께 세계 삼대 야경으로 부른다. 바람이 거세어 음악에 나오는 다뉴브강의 잔물결은 잔물결이 아니라 거친 물결이 배에 부딪치고 밤바람이 차가웠지만 야경은 정말로 세계의 어느 도시 못지않게 일품이다. 유난히도 눈에 띄는 다리가 쇠사슬로 엮은 듯한 세체니 대교이다. ‘세체니’라는 귀족 집안의 ‘이스트반 세체니’가 어느 날 영지를 방문하다 아버지의 부음을 듣고 귀가하려는데 기상이 악화되고 다뉴브강의 파도가 거세 8일간을 꼼짝 못하다가 9일 만에 귀가하여 부친상을 치렀다. 이에 화가 난 세체니가 1년간의 자기 수입을 몽땅 털어 다리를 건설하기 시작했고 일반 시민들도 합세하여 1820년 완공을 보게 된다. 380개의 쇠사슬로 연결된 다리에 수천 개의 전등이 도나우 강에 비추어 반짝이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다. 이 다리를 건설한 세체니 백작을 헝가리 사람들은 ‘제일 위대한 헝가리인’이라 부른다.

아침 식사 후 부다페스트 전경을 관람할 수 있는 최고의 언덕 겔레르트 언덕을 올랐다. 부다 지구에 있는 표고 235m의 언덕 중간에 전도사 겔레르트의 석상이 서있다. 성 겔레르트는 헝가리 마자르족을 기독교로 개종시키기 위해 파견된 전도자였다. 그러나 기독교 개종을 반대하는 이교도에게 잡혀 못이 촘촘히 박힌 오크 통에 가두게

되고 끝내는 이 언덕에서 다뉴브강으로 굴려 버렸고 그는 온몸이 못에 의해 만신창이가 되어 순교하게 된다. 이 순교자를 기념하는 석상이 겔레르트 석상이고 이 언덕이 이와 같은 이름으로 불리게 된다.

이어서 찾은 어부의 요새. 왕궁의 언덕 동쪽에 네오 로마네스크 양식의 고깔모자 같은 흰색 탑(건물)이 7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7은 헝가리의 7부족을 의미한다. 1899년~1905년 사이에 지어진 이 건물은 시민 군이 왕궁을 지키고 있을 때 다뉴브강의 어부들이 이 지점을 방위한 데서 어부의 요새라 명명하였고, 이곳은 지금까지 나라를 스스로 지키자는 헝가리 애국정신의 상징이 되고 있다. 건물 전체가 긴 회랑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 옆에 유명한 마차시 교회가 있는데 13세기에 세워진 네오고딕 양식의 건축으로 빈의 스테판 대성당과 지붕 모습이 비슷하다. 15세기 마차시 1세 때 높이 88m의 첨탑이 증축되었기 때문에 마차시 교회의 이름이 붙여졌으며 헝가리 역대 많은 왕들이 대관식, 결혼식을 한 곳이다. 요새와 성당의 사이에 청동상이 있는데 헝가리의 초대 왕인 성 이슈트반의 승마상이다.

차 안에서 가이드의 설명. 헝가리가 현재는 국민소득 약 14,000\$로 우리보다 못 살지만 과학적으로 문화적으로 상당히 발전된 나라라고 설명을 한다. 헝가리 의대의 한 의사가 지구상 최초로 수술 전 손을 씻어 무균 상태로 수술하여야만 환자의 감염을 줄인다는 것을 발견했고 비타민 C의 발견, 칼라 TV, 냉장고의 원리 등 엄청난 인류의 변화를 가져왔는데 이를 어느 학자는 ‘헝가리 현상’이라고 한단다. 노벨상을 무려 18명이나 배출했다 하니 노벨상 겨우 1명 그것도 평화상 밖에 없는 한국으로 헝가리가 비록 지금은 가난한 나라지만 큰 소리를 칠 수 없을 것 같다. 요즈음 한류의 바람이 불어 대장금은 최고 시청률 72%를 차지했고 기황후, 동이 등의 한국 드라마가 인기였단다. 그 밖에도 전통 한국 춤, K-POP도 인기이고 한국 음식도 많은 인기가 있단다. 부다페스트에 한국문화원이 있어 한국 문화를 전파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며 유학생에게도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한다. 마침 우리의 현지 가이드 아주머니도 딸이 헝가리 의대에 진학하여 이곳에서 딸의 뒷바라지를 하며 가이드로 부수입도 올리며 살고 있는 기러기 엄마였다.

‘북유럽의 로마’라 불리는 프라하

체코의 수도 프라하로 향하는 길 날씨가 오랜만에 아주 쾌청하다. 9시 30분 경 체코의 휴게소에 들렀는데 승용차 운반하는 대형 트럭들이 많이 있었고 그 트럭에 실린 승용차의 마크가 낮익었다. 잘 보니 현대차였고 그중에 한국에서 잘 나가는 준 중형차 ‘i30’이었다. 체코까지 진출한 한국의 자동차가 대견스럽고 또 한편 뿌듯함을 느꼈다.

아름다운 “북국의 로마” 프라하. 인구 약 120만명, 시가지 한가운데 블타바(Vltava)강이 흐르고 강 양쪽에 고풍스러운 프라하 성을 비롯하여 로마네스크, 고딕, 르네상스, 바로크 양식 등 다양한 양식의 건물들이 자리 잡고 고풍스러운 운치를 더해 이 도시를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고 있다.

맨 처음 프라하성과 스테인드글라스의 화려함으로 유명한 성비투스 성당을 찾았다. 성당은 물받이까지 조각이 섬세하게 되었고 내부의 스테인드글라스 작품은 다른 성당에서 보는 것과 달리 화려하고 특이하였다. 11세기부터 짓기 시작하여 20세기에 이르러 지금의 모습을 갖추었다니 얼마나 오랜 시간 공을 들였나? 여하튼 프라하를 대표하는 건축물이다.





체코문화원을 공식 방문하였다. 체코문화원은 체코공화국의 외교부 소속기관으로 풍부한 문화적 전통을 가진 체코 공화국을 전 세계에 알리는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 2013년에 한국에 체코문화원이 설립되어 한국과 다양한 문화 교류를 하고 있다. 우리를 영접한 분은 젊고 아주 미인형의 여성이었는데 가슴에 훈장을 단 것을 보니 외교부에서도 꽤 높은 분으로 추측되었다. 우리 방문단 원장님들이 체코와의 문화 교류에 다양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질문을 하였는데 외교부와 문화원 관계자분들이 성실히 응답해 주었는데 그 대답 중에서도 책임 있는 말은 모두 이 외교부 관계자의 몫이었다. 우리 앞에 놓인 다양한 팸플릿을 보니 체코문화원이 한국에서 다양한 공연을 하고 있고 또 체코 예술을 우리나라에 선보이고 있었다. 예를 들어 서울 대학로에서 “현대 체코 무용” 등을 공연했고 심지어는 지방까지 진출하여 경기도 시흥에서도 ‘체코 인형극의 세 가지 매력’이 전시되기도 하였다.

구 광장으로 향하였다. 가는 도중 보니까 같은 건물이 하나도 없고 다양하고 예쁜 건물들이 각각의 모습을 자랑하고 있었다. 가이드가 “그래서 프라하는 사진발을 잘 받는다”라고 설명한다. 구시가지 중앙 광장에서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커다란 인물 동상. 얀 후스가 추종자들에게 둘러싸인 모습. 이 인물이 중세 최초의 종교개혁을 시작했고 많은 종교전쟁의 발단이 되었던 인물이다. 구 시청사가 있고 그 맞은편에 고딕 양식의 틴 교회. 13세기에 창건되어 현재의 건물은 14C에서 16C에 걸쳐 만들어졌고 한때는 후스의 신봉자들이 회관으로 쓰던 곳이다.

구 시청사는 70m의 높이로 14c 경에 세운 건물이다. 건물 약 30m의 벽에 길가에서 보이게 만들어진 시계탑이 있는데 매시간 마다 두 개의 창을 통해 예수님의 12제자가 나타나고 가운데의 창에서는 황금색 닭이 나와 시간 울음을 울어준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 이벤트라고 하여 매시간 정시가 되면 어디에서 몰려오는지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으로 몰리는데 닭이 한번 울고 작은 종소리가 나며 조그만 12사도의 인형이 지나가고 끝나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벤트 치고는 너무 “썰렁 이벤트”이다.

마지막으로 프라하 최고의 관광코스이며 낭만적인 다리인 카를교를 찾았다. 불타바강에 걸쳐있는 돌다리인 카를橋는 1357년에 완공된 중부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다리이며 길이는 약 500m가 된다. 다리 양쪽 끝에 고딕 양식의 문이 있으며 양쪽의 난간에는 성서에 나오는 인물 등 15체의 성상들이 조각되어 있는데 이는 17C~19C 사이에 제작된 것이며 가장 인기 있는 조각상은 얀 브라코프 성상이다. 이곳에서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많은 관광객이 이 신부의 조각에 손을 대고 소원을 빌어 동상의 일부분이 반질반질하다. 이 신부님은 왕비의 불륜을 고해성사로 들은 후 천주교의 교리대로 그 내용을 끝까지 왕에게 밝히지 않아 왕으로부터 미움을 사 산 채로 돌에 매달려 강에 버려졌는데 이 시신이 불타바강에 떠올랐으며 이때 이 성인의 머리 뒤로 다섯 개의 별이 후광으로 비쳤다고 해서 이 성인의 조각에는 꼭 5개의 별이 있다. 그래서 가이드가 붙인 별명으로는 “5성 장군”이다.



세계 유산의 도시 체스키크롬로프와 뉘른베르크로 동유럽 여행을 마친다

체코의 고성이며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체스키크롬로프성에 도착하였다. 언젠가 세계 여행가들의 조사에서 우리가 죽기 전에 꼭 보아야 할 도시로 꼽힌 곳이란다. 13C 크롬로프라는 귀족이 맑고 깨끗이 흐르는 사행천(강)에 도시를 건설하기 시작하였다고 하며 그 모습 그대로를 간직한 고성의 모습이 너무도 아름다웠다. 이곳은 인구 1만 5천 명의 조그만 마을로 1994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고 완전히 관광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관광도시이다. 곳곳의 건물들은 중세 고딕 양식에서부터 르네상스 양식, 바로크 양식과 우아한 로코코 양식 등 다양한 건축물들이 각각의 특징을 자랑하며 어우러진 아름다운 도시였다. 관광의 중심지는 조그만 도시의 중앙에 있는 시청사와 스보르노스티 광장이다.

뉘른베르크는 독일 바이에른주의 제2도시이다. 오래된 고도로 환상을 이루는 성벽과 역사적인 탑 그리고 교회 등의 모습이 중세 모습을 잘 간직한 중세 도시이다. 이 아름다운 도시에서 나치의 전당대회가 열리게 되고 그에 따라 인종차별법인 뉘른베르크법이 만들어지는데 그 법이 유대인을 학살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주고 그에 따라 수백만의 유대인이 학살되게 된다. 2차 대전이 끝난 후 그 나쁜 법을 만든 업보로 이곳에서 독일 전범에 대한 뉘른베르크의 군사재판이 열리게 되고 전쟁 범인들이 처벌되게 된다. 이러한 역사적인 변화에서 인권의 소중함을 일깨워준 곳이라는 의미로 2001년에는 이 도시가 세계 인권상을 받게 되기도 한다.

뉘른베르크 중앙 광장을 돌아보았다. 우리 호텔이 바로 중앙 광장 앞부분이기에 극히 가까운 곳이다. 그곳에 성모 교회라는 ‘프라우엔 교회’가 있다. 광장 주변의 재래시장을 둘러보는데 시장이 크리스마스 마켓 준비로 한창 바쁘다. 이곳은 유럽의 ‘크리스마스 마켓’ 중 가장 아름답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 중의 하나로 12월쯤 오면 엄청난 인파가 모여 크리스마스 마켓을 마음껏 즐길 수 있다고 한다.

곳곳이 예쁘고 인형들이 가게 앞을 장식하는데 알고 보니 이곳은 인형과 완구가 유명한 곳으로 매년 완구박람회가 열리는 곳이란다. 아름다우면서도 많은 상처를 안고 있고, 끝내는 세계인권상을 받은 뉘른베르크를 끝으로 우리 충남 문화원장의 동유럽 답사는 마무리된다. 모든 원장님들을 감동시키고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느끼는 좋은 여행이었던 것 같다.

베트남에서의 여운을 느끼며

금산문화원 삶꽃팀장 손흥영

깜깜한 하늘 아래로 형형색색의 화려한 네온 불빛이 번쩍이고 있는 대교 아래로 배 한 척이 천천히 유람하고 있었다. 배 안에서는 가수 못지않은 열창에 환호성이 터져 나왔고, 하나둘 흥겨움에 자리를 박차고 어우러지는 모습에 평소 가지지 못했던 즐거움이 절로 나오는 듯하다. 정신 좀 차리기 위해 바람을 좀 쐬려고 상판으로 나왔다. 한쪽에서는 국장님들 몇 분이 무언가 진지한 분위기를 내뿜으며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한쪽에서는 젊은 남녀 몇몇이 이국의 밤경치를 보며 조용히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다. 어디 마땅히 낯선 곳이 없었기에 연신 카메라 셔터만 눌렀다. 우리가 여유롭게 노니고 있는, 한국에서 멀리 떨어진 이곳의 이름도 ‘한강’ 이었다.

‘한강’이 가로지르고 있는 다낭이라는 도시에 우리 일행은 며칠 전 도착했다. 금산에서 출발해서 공항을 거쳐 이곳 베트남까지 올 때까지 하루가 꼬박 걸렸기에 도착해보니 잠들 시간이 훌쩍 지나버린 후였다. 숙소로 도착하자마자 피곤한 몸을 침대에 싣고 눈을 감았다. 아침이 되어 눈을 떠보니 창밖으로 베트남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부지런한 몇몇 사람들은 벌써 근처 해변가에도 다녀왔다고 한다. 간단히 호텔에서 조식을 마치고, 로비에 나가보니 우리

일행을 태우고 떠날 예정인 버스는 이미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동하는 것만으로 훌쩍 지나가버린 첫날을 뒤로하고 본격적인 여정인 두 번째 날 일정이 시작된 것이다. 처음 방문할 곳은 영웅사라는 사찰이었다. 산위에 자리 잡은 이곳에 67m의 동남아시아 최대의 해수관음상이 눈길을 끌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베트남의 불교는 기원전 1세기경 중국으로부터 전해져서 거의 2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지만 많은 시련을 받아왔다고 했다. 1883년 프랑스의 식민지 통치하에 가톨릭이 전해지게 되었고, 각 사원의 승려 수를 제한하고 새로운 포교를 허락하지 않았다. 이에 많은 베트남 불교도는 저항하였고, 프랑스에게서 독립을 한 후 한시를 놓나 했지만 가톨릭 신자였던 고딘디엠이 남베트남에서 정권을 잡게 되자 다시 불교 차별 대우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이에 광독스님의 소신공양 이후 많은 국민들이 북베트남에 참여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어서 결국 1975년 북베트남이 사이공을 점령하며 베트남 전쟁이 막이 내렸으나, 공산화 이후 베트남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이야기를 듣고 산을 내려오는데 비가 조금씩 내려 마음이 다급해져서 엿을까 발걸음이 빨라져 버스로 도착해보니 아직 많은 인원이 도착하지 않아 한참은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았다. 근처를 잠시 둘러보니 이곳저곳에 커피 판매점이 눈에 보였다. 하나 사 먹어볼까 하고 기웃거려봤으나 메뉴판도 안 보이고 말도 안 통해 어째야 하나 하고 있는데 주인장이 다가와서 지갑에 돈을 쓱 빼갔다. 어~어~ 하는 사이에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내 손에 커피 한 잔 쥐어져 있었는데. 나중에 지갑을 확인하니 우리 돈으로 천 원 정도 지불했었다. 우리나라에서 먹어본 커피보다 그 맛이 상당히 진했다. 세계적인 커피 생산국이라더니 이렇게 진하게 먹는구나 싶었다.

버스 안에서 보는 밖의 풍경은 우리가 지나온 세월을 가지고 있는 듯하기도 하고 색다른 동남아 만의 풍경을 담고 있었다. 이후 다양한 교회, 사원, 동굴, 왕궁 등 많은 곳을 다녀보니 그들만의 치열하면서도 여유로운 행동이 보였다. 베트남은 한참 성장세인 젊은 나라라고 한다. 국민들 또한 부지런하게 생활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그러한 행보가 경쾌해 보였다. 그러면서도 따뜻한 나라 특유의 여유로움이 묻어났다. 각박한 요즘 우리네의 모습을 떠올려 보자니 우리도 한번 여유를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짧은 며칠의 일정이지만 이상하게 여운이 남았다. 특히 다낭공항에서 출국심사를 마치고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자니 더욱더 그러한 느낌이 들었다. 며칠 사이에 그리 정이 들어서 일까? 직접 경험한 베트남 사람들은 참 친절했다. 볼 때마다 그들의 얼굴은 웃음을 짓고 있었고, 아는 한국말 몇 마디라도 섞어서 이야기하려고 애썼던 모습이 기억났다. 아... 장사 고수 아주머니에게 비싸게 망고를 구입한, 속되게 표현해서 ‘눈탱이’ 맞은 일도 생각났다.

베트남의 ‘한강’ 어느 좁은 배 안에서 서로 환호하며 즐거워하던 그때의 그 모습처럼 베트남에서는 서로를 이어주게 해주는 힘이 있는 듯싶다. 바쁜 일상에서 한 점 휴식점을 찍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잠시 여유를 찾게 해주는 베트남의 여유는 앞으로 우리에게 물 위에 파동처럼 크게 이어져서 전해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상의 치열한 삶 속에서도 그 여운은 마음속에 오래 남아 모두에게 전해졌으면 한다.



침략의 역사를 넘어
신성장국으로 도약하는

베트남을 다녀오다

서산문화원 과장 최윤경

지난 5월 25일부터 29일까지 충남문화원연합회 사무직원 해외문화탐방 프로그램으로 베트남을 다녀왔다. 베트남은 인도차이나반도의 동부에 있는 나라로 S자 모양의 남북으로 길게 뻗어있으며 그 면적이 우리나라의 3배가 넘고 인구는 두 배 가량 많다. 하지만 소득은 1인당 GDP가 불과 2,000달러에 불과하다.

3박 5일간 베트남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방문하였는데 베트남의 과거와 미래를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 소개해 보려고 한다.

다낭

다낭은 베트남 중부지역의 최대 상업도시로, 해변을 끼고 들어선 큰 호텔과 빌딩을 보면 이곳이 베트남인가 싶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떠오르는 휴양도시로 유명해졌는데, 20km에 이르는 미케비치의 해변엔 휴양을 즐기는 외국인을 쉽게 볼 수 있었다. 하지만 휴양객과 조금 떨어진 곳에서 “통카이”이라 부르는 바구니처럼 생긴 작은 배를 타고 인근에서 조업을 하는 어부들의 모습이 보인다. 맨손어업과 비키니 관광객의 동거라니... 색다른 풍경이다.



미케비치를 지나며 선짜반도에 있는 영응사라는 사찰을 방문했다. 바로 67m의 동남아시아 최대 해수관음상이 있는 곳이다. 엄청난 규모의 사찰을 지을 만큼 영험한 산이라고 하는 데, 비밀스러운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고 한다. 고개를 들고 관음상을 올려다보니 어머니가 나를 바라보며 위로하는 듯한 눈빛이다. 이 눈빛을 보기 위해 이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나 조심스레 나도 비밀을 마음속에서 꺼내어본다.

오행산은 물, 금, 불, 나무, 흙을 뜻하는 이름이라고 하는데 그 정상을 올라가 보니 이해할 수 있었다. 너른 평지 위에 다섯 개의 산이 불쑥 튀어나온 모습이 굉장히 기이하다. 대리석으로 이루어진 오행산엔 동굴이 많다고 한다. 미끄러운 계단을 조심스럽게 올라 불상을 모신 동굴을 찾아가 보았다. 그런데 그곳은 베트남전쟁 당시 포탄으로 천장에 큰 구멍이 뚫려 있어 이젠 동굴 아닌 동굴이 되어 있었다. 이곳이 불과 50여 년 전 전쟁터였음을 상기하게 된다.

베트남 종교인의 대다수는 불교와 카톨릭이다. 다낭 대성당은 “닭 성당”, “핑크 성당” 등 여러 별명을 가지고 있다. 프랑스 식민 통치 시기에 건축된 성당으로 규모는 크지 않지만 교구를 대표하는 중요한 성당이다.



소수 종교로 까오다이교라는 독특한 종교가 있는데 세계 5대 종교인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 유교, 도교 등 모든 종교는 하나라는 이념을 토대로 한 종교이다. 그래서 그런지 건물 모양부터 교리까지 여러 종교가 혼합된 모습이다. 까오다이교 사원의 예배당 안엔 큰 지구본 모양의 원에 눈 하나가 그려져 있고 예수, 부처, 마호메트, 공자 등이 함께 서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 미스터리 한 그 분위기가 마치 우리나라 인기 프로그램인 “서프라이즈”를 떠오르게 했다.

다낭엔 우리나라 서울의 한강과 이름이 같은 강이 흐른다. 베트남에서의 마지막 날 한강 유람선을 타고 야경을 바라보며 집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 가족들을 떠올려 보았다.

호이안

다낭에서 남동쪽으로 약 30km 떨어진 곳에 호이안이 위치한다. 호이안은 투본강을 끼고 형성된 도시인데 바다의 실크로드라 불렸던 동남아 최대의 무역항이었던 유서 깊은 도시다. 호이안에는 전통적인 동남아시아 무역항의 모습이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는데 바로 이곳 호이안의 구시가지가 1999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다. 세계문화유산하면 박물관에 있거나 거대한 스케일을 눈으로만 감상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호이안은 도시 자체가 문화유산이다. 복고적인 골목 풍경과 함께 오래된 가옥에선 여전히 상점과 식당 등을 운영하고 있어 마치 과거에 온 듯한 느낌을 준다.

전통적인 좁은 골목길을 따라 가옥, 탑, 사원, 공동체 건물, 시장 등 옛 모습 그대로 남아있다. 일본인 마을과 중국인 마을을 연결하는 다리인 ‘일본교(日本橋)’, 중국식 옛 가옥들과 탑, 베트남 전통의상들과 먹거리들... 국제 무역항 다운 융합된 문화와 베트남의 전통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로 가득 찬 호이안 시가지는 온통 관광객들로 가득 차 시끌벅적하다. 마치 서울의 명동을 보는 듯하다. 그래서 그런지 어느 관광지보다 서양인들이 많아 이색적인 분위기인데, 일정에 쫓기는 우리와 달리 식당에 앉아 느긋하게 차를 마시며 도시의 분위기를 즐기는 모습에 부러움을 느낀다.



과거 이곳은 16~17세기 무역도시로 번성했지만 다낭과 같은 다른 항구들이 부상하면서 급격하게 약화되었고 그 점이 오히려 원형 그대로 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되었다. 이제 호이안을 끼고 있는 투본강엔 더 이상 포르투갈, 프랑스, 인도, 중국, 일본 등의 상선은 찾을 수 없다. 하지만 21세기 상선 비행기를 타고 이곳까지 온 세계 각지의 사람들이 이곳에서 먹고 즐기며 상품 가격을 흥정하는 소리로 가득하다. 신세기 국제무역도시의 부활. 이곳 호이안이 아닐까?



후에

다낭 북쪽엔 세계 10대 비경 중 하나로 손꼽힌 하이반 고개가 있다. 베트남에서 가장 높고 긴 이 고갯길의 해안도로를 따라가다 보면 저 멀리 다낭의 비치와 도시가 내려다보인다. 하이반 고개의 아름다운 비경에서 고개를 돌리면 전쟁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베트남 전쟁 당시 남과 북의 경계선으로 가장 치열한 전투가 있던 장소로 우리나라 파견군도 전쟁을 치른 곳이기도 하다. 산 정상 부근 휴게소에는 부서진 성문과 건물, 총탄 자국이 그날의 치열한 전투를 말해주는 가운데 많은 관광객들은 세차게 부는 바람을 맞으며 사진 찍기에 여념이 없다. 특히 부서진 초소 위는 웨딩 촬영의 명소인 듯하다. 전쟁의 참혹함이 상품이 되는 시대이다.

이런 하이반 고개를 넘어가면 후에라는 도시가 있다. 후에는 베트남 마지막 왕조의 수도이며 ‘후에 기념물 복합지구’로 1993년 베트남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되었다. 왕궁, 성, 사원, 왕릉 등 많은 이곳의 유적지 가운데 몇 군데를 둘러보았다. 후에 왕궁은 작은 자금성이라고 불릴 만큼 넓은 왕궁이다. 우리나라의 경복궁처럼 외국인들에겐 필수 코스인 듯하다. 베트남인의 유창한 한국어 안내를 통해 짧게나마 베트남의 역사를 들어볼 수 있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중요처럼 베트남 왕의 위패를 모셔 놓은 사당에서 몇몇 왕들의 행적을 살펴보았는데 폭군과 무능한 왕에 대한 비판과 분노는 시대와 나라를 초월하는 듯하다. 하지만 백성을 착취하고 나라를 고스란히 프랑스에 바쳤던 카이딘 왕은 천수를 누리고 가장 화려한 왕릉을 자랑하고 있었다. 베트남 국민이라면 물론이요, 우리조차도 욕하며 카이딘 왕릉을 들어섰지만 입구를 들어서며 엄지척 할 수 밖에 없으니 참 아이러니한 역사가 아닐 수 없다. 비록 그 눈부심에 잠시 감탄했지만 인류라면 역사에 대한 반성과 고찰이 반드시 있어야 하리라 되새겨본다.

베트남의 문화는 중국으로부터 천 년 동안 지배를 받아서 불교문화와 유교적인 전통이 혼합된 듯하다. 또한 습한 날씨 때문인지 목조건축은 보기 어려웠고 고급 건축물에서는 돌보다 단단한 흑단나무와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대리석 바닥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오래 세월을 겪은 석조물들엔 이끼가 끼서 검은색 돌처럼 보였다.

중국이 그러하듯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도 급속한 경제발전 중임을 알 수 있었다. 화려한 야경을 바라보며 관광지마다 바나나를 들고 ‘원달러’를 외치던 아이들이 떠올랐다.

지난 4일간 우리는 베트남의 수많은 모습 중 일부만을 보고 왔을 뿐이지만 작은 체구에서 발산하는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다. 실제로 현재 인구의 50%가 30대 미만이라고 하니 우리나라에 비하면 파릇파릇한 청년 아닌가? 그들의 고유문화를 잃지 않고 같은 아시아인으로 교류하고 상생하는 미래를 그려보며 짧은 여행의 여운을 마무리해본다.

문화원 소식

2017' 문화원의 날 기념식



‘대상’ 수상 예산문화원

“전국 지방문화원의 新역할 창출 본보기가 될 터”

지난 10월 11일 인천광역시 강화도에서는 2017' 지방 문화원의 날 기념행사와 함께 대한민국 문화원상 시상식이 함께 열렸다.

전국 229개 문화원들이 한 자리에 모인 이 자리에서 충청남도 예산문화원(원장 김시운)은 전국 지방문화원의 발전 모델로 기여한 유공자로 선정되어 이오성 문화부 문화예술정책실장으로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표창을 받았다.

김시운 문화원장은 수상 소감에서 작은 농촌도시인 충남의 예산문화원이 전국 문화원 종합경영평가에서 1등하여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였는데 지방문화원 발전 유공자로까지 선정되어 경경사의 감개무량함을 금할 수 없다는 말과 함께, 앞으로 충남학과 예산학을 통한 지역학 연구와 인문강화를 통해 전국 지방문화원의 新역할 창출에 본보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과 포부를 밝혔다.

충남에서는 이날 예산문화원이 2017 대한민국 문화원상 종합경영분야 대상 국무총리 표창과 김시운 예산문화원장은 지방문화원 발전 유공자 문화체육관광부 표창, 인재분야 창의활동가 표창 3가지를 동시 수상하였다.



‘최우수상’ 수상 서천문화원

“대한민국 문화원상 최우수상 수상의 영광을 문화 회원들에게”

서천문화원이 2017 대한민국 문화원상(종합경영분야) 최우수상에 선정되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받았다. 서천문화원은 지역문화발전에 대한 기여도, 문화프로그램의 운영 수준, 문화원 종합경영 등 모든 분야에서 고르게 높은 평가를 받았고, 특히 어르신동아리 활성화사업, 옛 성씨 뿌리찾기, 충남학 강좌,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및 공모사업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어 큰 점수를 받았다.

조순희 서천문화원장은 “서천문화원이 대한민국 문화원상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다”며 “서천 문화원을 지원해주시는 서천 군수님께 감사드리며 특히 문화원을 지탱해 주시는 문화원 회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2017 대한민국 문화원상은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전국 229개 지방문화원을 대상으로 문화원 종합경영에 대한 내용 등을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금산문화원 50주년 기념행사 개최

금산문화원은 10월 20일 금산세계인삼엑스포광장 주무대에서 지역민과 관광객 등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문화원 창립 50주년 기념 ‘금산문화예술제’를 개최했다. 이번 문화예술제는 금산문화원의 대표적인 캐치프레이즈인 ‘삶꽃’을 주제로 모두가 문화를 공유하며 어울리는 마당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금산문화원 50년사 헌정과 문화원 발전 유공자 표창 및 충청남도 무형문화제인 물폐기농요와 농바우끄시기, 금산농악의 시연을 시작으로 소속단체들의 축하공연이 화려하게 펼쳐졌다.

또한, 금산이 지금의 당산을 있게 한 소리의 고향이라고 하는 이 시대 소리꾼 장사익의 축하공연과 금산에서 함께 문화 예술을 즐겼던 시인들과의 추억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 냈다.

논산문화원 60주년 기념행사 개최

논산문화원이 창립 60주년을 맞아 기념축하음악회 및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11월 9일 논산문화예술회관에서 있었던 창립기념 축하음악회에서는 충남교향악단 윤승업 상임지휘자와 60여 명의 오케스트라가 베버의 ‘무도회의 권유’ 외 9곡을 선보였고, 바리톤 김동규와 소프라노 김수연의 협연으로 ‘11월의 어느 멋진 날에’ 라는 주제에 맞게 70여 분 간 환상의 하모니를 선보였다.

11월 14일 오후 2시 문화원 다목적홀에서는 창립 기념식이 개최되었다. 이 날 기념식에는 황명선 논산시장을 비롯해 시의회의장 및 시의원, 이경동 한국문화원연합회 회장,

정연주 건양대 총장 등 내빈과 회원 200여 명이 참석하 가운데, 현악 4중주와 태평무 공연 등 많은 사람들의 큰 호응을 받으며 성료됐다. 류제협 원장은 역대 문화원장인 하기수 고문과 박응진 고문에게 문화원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전달했고, 고(故) 양인식 사무국장(1984년~1997년)을 대신하여 큰 아들인 양동일씨에게 논산문화 발전에 헌신한 공로로 공로패를 추서했다. 고(故) 양인식 사무국장은 이날 문화원 명예의 전당에 최초로 이름을 올렸다.

기념식 이후 최영화 전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심오섭 강릉문화원사무국장, 정경일 논산문화원 이사(건양대 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논산문화원 발전을 위한 세미나가 진행되었다.



2017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 활동상황



연합회장 취임

- 일자 3월 1일
- 제12대 김한국 회장(태안문화원장) 취임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 사무실 개소식

- 일자 4월 28일
- 장소 충청남도청 별관
-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 단독 사무실 개소식



사무직원 선진문화탐방

- 일자 5월 25일~29일
- 장소 베트남 다낭, 호이안 일대
- 대상 충남 지방문화원 사무직원
- 인원 30명
- 해외문화사업 벤치마킹 및 해외 문화와 생활상 체험



지방문화원 활성화 워크숍

- 일자 7월 19일 ~ 20일
- 장소 안동 한국국학진흥원
- 대상 충남 지방문화원 사무직원
- 인원 35명
- 실무교육(특강), 문화원 사업교류, 유적답사 등



명사와 함께하는 내포투어

- 일자 6월 ~ 11월(연중 5회)
- 장소 내포신도시 및 충남 일원
- 인원 500명
- 유명인사와 함께 동행하는 투어 프로그램을 통해 내포문화권 중심 관광산업 활성화 및 브랜드 가치 상승 도모

충남문화 제21호 및 웹진 '매거진 CN' 발간

- 「충남문화」 충남문화원의 문화행사, 축제, 문화재 및 도내 문화원 소식 수록(300부)
- '매거진 CN'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 홈페이지(www.cnkccf.or.kr) 웹진 발행 형태로, 문화원의 소식과 충남의 문화재 등 온라인 홍보



충남 여성문화예술인 교류사업

- 일자 10월 17일
- 장소 충청남도청
- 대상 충남 여성문화예술인
- 인원 15명
- 충남 여성문화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여성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2017 어르신문화프로그램 권역별 성과사업 (충남의 어르신, 문화로 소통하다)

- 일자 10월 18일
- 장소 태안문화원 아트홀
- 대상 충남 지역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참가 어르신
- 인원 300명
- 어르신 문화예술 활동 교류 및 사업성과를 공유하는 축제의 장



사무직원 위탁교육(회계관리)

- 일자 10월 30일
- 장소 충청남도청 문예회관 세미나실
- 대상 충남 지방문화원 회계담당자
- 인원 30명
- 충남 문화원의 투명한 회계처리 및 효율적인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한 회계관리 프로그램 교육



문화자원봉사활성화사업 시도지원본부 운영

- 문화품앗이 관리 및 지역 네트워크 강화와 문화봉사자 모집 관리
- 1차(10.27): 예산삼국축제 내 홍보 및 활동처 간담회(예산문화원)
- 2차(11.05): 태안문화제 내 홍보 및 활동처 간담회(태안문화원)



도내 문화원장 해외연수

- 일자 11월 9일~17일
- 장소 유럽(독일, 오스트리아, 체코)
- 대상 충청남도 내 지방문화원장
- 인원 15명
-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비교분석을 통한 국제적인 마인드 함양

2017

충남지방문화원 현황

문화원명	소재지	설립일	원사총면적(평)	원장	사무국장	직원	전화/팩스	비고
충청남도 문화원연합회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21 충청남도청 별관동 101호	1987.02.		회장 김한국	사무처장 정지수	김상희 송은지 박은미	T. 635-9102 F. 635-9104	
공주문화원	공주시 대통1길 66	1954.12.16	650	최창석	현대수	양문숙 정지은	T. 852-9005 F. 856-6746	
금산문화원	금산군 금산읍 금산로 1559	1967.11.18	364	이철주	전병만	안용산 석현숙 손홍영	T. 754-2724 F. 754-6611	
논산문화원	논산시 관촉로 113-16	1964.12.30	520	류제협	이준창	전현희 고승연 김형태	T. 732-2395 F. 732-2394	
당진문화원	당진시 남산공원길 151-16	1955.09.01	341	유종인	강대원	백숙현 이아름	T. 354-2367 357-2367 F. 356-3850	
보령문화원	보령시 대흥로 63	1956.03	848	김진숙 (권한대행)	임성빈	김명희	T. 934-3061 F. 936-3071	
부여문화원	부여군 부여읍 의열로 43	1954.03.01	989	정찬국	김인권	이미영 박경택 김미완	T. 835-3318 F. 833-3318	
서산문화원	서산시 부춘공원2로 11	1965.02.11	570	이준호	김영철	최윤경 강현숙 이용배 김윤옥	T. 669-5050 F. 669-4567	
서천문화원	서천군 서천읍 화금서길 29-18	1965.01.26	301	조순희	박은희	정혜옥 문치운	T. 953-0123 F. 953-0133	
예산문화원	예산군 예산읍 천변로 90번길 3	1955.10.15	755	김시운	박세진	〈본원팀〉 이충환 이수영 박태현 한태민 조원우 〈극장팀〉 김동환 박지혜 이은상 장화수 이다연 장혜민	T. 335-2441 T. 332-2441(별관) F. 334-4330	
운양문화원	아산시 남산로 28	1957.05.10	250	정종호	김형기	이명숙 박현미 박상규	T. 545-2222 F. 542-4444	
천안시 동남구문화원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아우내순대길 29	1958.04.20	244	조성오	곽승일	엄미나	T. 564-1022 F. 563-1021	
천안시 서북구문화원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3로 7-11	1963.05.10	275	이종석	신광식	문경희	T. 581-2101 F. 582-1725	
청양문화원	청양군 청양읍 중앙로 129	1965.02.11	285	이진우	복은주	차승원 송미애 강원구	T. 943-4774 943-4775 F. 944-1030	
태안문화원	태안군 태안읍 백화로 192	1990.06.05	1,061	김한국	정지수	〈사무국〉 김유미 안은선 김가람 〈시네마〉 전홍배 양정현 박미영 윤은진 김서희 곽민재	T. 674-2192 F. 675-6968	
홍성문화원	홍성군 홍성읍 충절로 951번길 16	1954.03.31	605	유환동	조남민	강청식 김숙희 정선영	T. 632-3613 F. 633-1199	